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29일)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총무원장 직인 인계 태고종 정상화 청신호

제15대 중앙종회 제140회 정기회의 열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단 내홍의 불씨로 지목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 직인을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인계했다. 이에 따라 제27대 집행부가 태고종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내홍 종식을 선언하며 종단 정상화를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12월 19일 서울 사간동 종단 청사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진입했다. 이날 청사 앞은 호명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제27대 집행부와 제15대 중앙종회의원들이 밀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얼마 전 당선된 중앙종회의원들은 제140회 정기 중앙종회 개회를 위해 청사를 개방할 것을, 제27대 집행부는 법적 지위가 정지된 편백운 스님의 퇴거를 촉구했다. 하지만 청사 문은 굳게 잠긴 채 개방되지 않았다. 편백운 스님은 이날 오전 청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27대 집행부와 제15대 중앙종회는 물리력을 동원해 문을 개방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청사에 진입했다.

청사에 들어선 스님들은 곧바로 제140회 정기 중앙종회를 개원, 종지종풍 선양과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서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는 52명이 당선됐지만 회의에는 48명이 참석해 각각 의원 자격을 얻었다.

회의에서 제15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으로는 법담 스님이 선출됐다. 법담 스님은 제14대 중앙종회에서 특별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장 선거에는 인천 용궁사 능해 스님과 양주 청련사 지홍 스님이 경쟁후보로 나섰으나 법담 스님이 최종 당선됐다. 수석부의장은 진천 보현사 상명 스님, 차석부의장 제주 정방사 혜일 스님이 각각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법담 스님은 "종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앙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칙과 신뢰, 희망 속에서 종회를 꾸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장단 선출을 마친 종회는 정식 안건을 처리했다. 제5대 원로회의 의원 선출과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의는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다만 원활한 종무행정을 위해 총무원장이 제안한 교육원장 법안 스님, 총무부원장 성오 스님, 법규위원장 혜주 스님, 사회복지원장 휴완 스님 임명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외에 총무원 집행부 홍보부장 법훈 스님, 전법사부장 심원 법사, 종무위원 도종 스님 임명 동의안도 처리됐다.

편백운 스님은 이날 종회가 진행되던 사이 호명 스님에게 대화를 제안, 경찰 입회 아래 청사 2층 총무원장실에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 직인과 함께 평화적으로 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약속했다.

호명 스님은 종회에서 내년도 종단 사업계획으로 종단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매월 주요인사 연석회의와 전국시도교구 국장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종무행정 프로그램 재정비 △종단 홍보기능 강화 △승려 및 사찰 분한 신고 활성화 △국운융성 및 종단발전 기원대법회 △교육제도 정비 및 교육기관 지원 △승려의 무금 조정안 마련 △승풍 기강 확립 △전국신도회 조직 정비 △한국불교신문 · 월간불교 정비 등 총 10대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호명 스님은 "제27대 총무원 집행부는 종무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15대 중앙종회와 모든 종도들의 염원 속에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며 "약 1년간 마비된 총무원 업무를 다시 시작해 종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 측 대화 요청에
평화로운 인수인계 약속 받아
전반기 의장 법담 스님 선출
각급 임원 임명동의안도 처리
가처분 호명 스님 지위 인정

앞서 지난 5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 스님은 편백운 스님의 청사 출입 방해로 인해 청사와 떨어진 오피스텔에 임시 총무원을 운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 종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과의 이날 약속에 따라 태고종은 내년을 기점으로 종무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날 법원이 편백운 스님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과 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호명 스님의 총무원장 정당성은 종단 안팎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명 스님이 편백운 스님에게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과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18일 인용했다. 법원은 호명 스님 측 인사의 출입을 막는 행위, 퇴거 요구에 편백운 스님이 불응하는 행위 등을 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편백운 스님이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편백운 스님이 호명 스님에게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했다.



새해 소원 "모두가 행복한 한해" 서울 조계사가 연말연시 사찰을 찾은 신도와 시민들을 위한 소원탑을 만들었다. 12월 16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의 소원탑에 소원지를 붙이는 불자들의 모습이 간절해 보인다. '건강' '자녀 학업성취' '성공' 등 저마다 각자 소원을 써서 탑에 단다. 하나 둘 붙여진 작은 소원들로 탑은 거대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소원으로 바뀔 것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韓포레스트 검프' 진오 스님 美대륙 횡단

베트남 108해우소 건립 목적
"자비의 마라톤은 수행"

2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LA에서 뉴욕 5,130km 횡단
준비 위해 올해 순례마라톤도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로 불리는 자비의 마라토너 진오 스님〈사진〉이 새해 베트남 전쟁의 참회와 베트남 주민을 돕기 위한 美대륙 횡단에 돌입한다. LA에서 뉴욕까지 스님이 뛰는 거리만 해도 5,130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결혼이주여성 쉼터인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진오 스님이 2020년 2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120일간 미국 대륙 횡단 마라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오 스님의 마라톤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한 '탁발마라톤'이다. 스님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알리기 위해 2011년 한반도 308km을 시작으로 베트남, 독일, 일본,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에서 300km부터 많게는 1200km까지 탁발마라톤을 전개하고 있다. 스님이 뛰는 1km마다 100원씩 모금돼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스님은 이렇게 모연된 기금 중 일부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농촌학교 54곳의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썼다. 왜 베트남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베트남 전쟁 참가국 국민으로서의 참회'다. 전쟁의 참화를 겪어 회복하고 있는 베트남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에도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다. 위생 상태가 열악해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스님과 후원하는 불자들이 지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만도 1만 2000명에 달한다.

앞으로 스님은 54곳의 화장실을 더 건립해 108곳의 화장실을 세울 예정이다. 이른바 '108 해우소 사업'이다.

스님이 미국에서 베트남 화장실 건립을 골자로 한 횡단 마라톤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 국민들도 이를 알고 함께 참회 ·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스님이 지금까지 뛴 거리가 1만5000여km가 넘지만 한번에 5000km를 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은 올해 초부터 미국 대륙 횡단 마라톤 기금 모연을 위해 조계종 교구본사 순례 마라톤을 진행해왔다. 매월 한 차례씩 전국사찰 한 곳씩을 정해 5일간 직접 뛰었다. 이런 노력 끝에 불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통해 스님은 120일간 체류할 캠핑차량 임대 및 숙식 등의 제반 비용은 해결했다. 남은 것은 스님의 체력에 달려있다.

출가 후 군법사로 있을 당시 한쪽 눈을 실명한 스님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는 탁발마라톤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며 "내가 가진 것은 두 다리밖에 없다. 사람마다 출신 국가는 달라도 행복 추구는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스님은 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공덕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향을 해야한다. 나와 남이 이로운 탁발마라톤은 자비 나눔의 길"이라고 마라톤에 임하는 자세를 전했다.

한편, 스님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마라톤 후원 내역은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www.maha108.net)에 자세하게 공개된다.

(054)454-7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답게' 산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게살겠습니다 캠페인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BBS 불교방송 방/송/안/내
❶차 12/24(화) 11:40 ❸차 12/28(토) 00:40
❷차 12/25(수) 13:40 ❹차 12/30(월) 19:30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7대 종단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TEL 02-2272-3848 http://www.답게살겠습니다.kr

조계종 약진과 이웃종단 추문

[2019 종단 결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들이 안정과 갈등의 '냉온탕'을 오갔다면, 2019년은 조계종의 약진과 이웃종단의 얼룩진 추문으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겠다. 조계종이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일신을, 태고종은 수장 교체 과정서 벌어진 파열음으로 갈등을, 진각종은 정신적 지도자인 총인의 자진 사퇴를 겪었다.

첫 발 뗀 백만원력과 성과

올해 조계종의 약진을 대표하는 사건은 바로 백만원력 결집불사다. 원행 스님의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지난 4월 서울 조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불·법·승을 주제로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 △육해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복지 확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한국불교 미래를 바꾸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조계종의 이 같은 결집운동에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해 풀뿌리 불자들이 ARS와 저금통,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금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37년 도반의 길을 걸어온 현대판 장자 설매·연취 보살이 인도 부다가야 사찰 건립기금으로 50억 원을 희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로써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선포 첫 해부터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의 건립 기반을 마련했다.

태고종 내홍 끝내 수습

지난해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태고종. 결국 지난 3월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원로회의가 이를 인준하면서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 직위를 잃었다. 편백운 스님은 이에 불복해 사회법에 제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불신임으로 수장 교체의 아픔을 겪은 조계종은 올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약진을, 수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던 태고종은 올해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새 수장을 선출했다. 사진 왼쪽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는 조계종, 오른쪽은 편백운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태고종 중앙종회.

이런 과정에서 태고종은 제27대 총무원장선거를 실시, 前선암사 주지 호명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차기 총무원장으로 지난 5월 선출됐다. 하지만 전임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은 27대 집행부의 청사 진입을 막고, 행정공백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이 12월 19일 호명 스님에게 총무원장 직인을 인계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진각종 정신적 지도자 교체

아들 성추행 의혹과 본인의 폭언·갑질 논란이 불가진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가 지난 5월 '건강상 이유'로 공식 사퇴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진각복지재단에 근무하는 회정 정사의 친아들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하면서 총인일가를 향한 퇴진운동이 전개됐다. 특히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가 가세해 당사자의 처벌과 종단 퇴출 등을 촉구했다. 결국 회정 정사는 총인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가 추대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백양사 고불총림 해제

1996년 고불총림의 지위를 얻은 백양사가 20여 년 만에 총림에서 해제됐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향한 내부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급기야 △前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을 이유로 중앙종회가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총림 해제의 첫 사례는 1999년 7월 영축총림이지만, 당시 통도사는 1998년 종단사태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해 정치적인 징계를 받은 것이어서 이듬해 다시 총림에 지정됐다. 결국 백양사는 내부의 비판과 원활하지 못한 총림 운영 등의 이유로 총림 해제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출범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본각 스님이 당선됐다. 지난 9월 진행된 선거에는 6천여 비구니스님들 중 19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인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 측 지지자들이 과열돼 일부 흑색선거로 흐르는 양상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선거는 마무리됐다. 또한 선거 이후 양측이 화합을 위해 노력키로 하면서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불자들, 백만원력 결집불사 발원

금산사 백만원력 교구법회, 전주 수현사서 봉행

사부대중이 매일 100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금산사 교구법회가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열렸다.

12월 15일 전주혁신도시 수현사 큰법당에서 열린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하유호 108순례단장, 정동영 국회의원, 최용범 전북행정부시장, 지역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홍수자 신도회 부회장과 하유호 108순례단장은 불자들을 대표해 발우저금통을 전달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성공을 위해 이근재 전북신도회장, 김영섭·홍수자 부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한 그동안 각 가정에서 모아온 발우저금통을 전달하는 불자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ARS전화로 즉석에서 불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성우 스님은 "금산사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모여 앞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도 부다가야에 다른 외국 사찰은 많지만 한국사찰이 없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부끄러웠다"며 "부처님 성지에 한국사찰을 세우고, 신도시마다 전법도량을 건립하고, 권역별로 불교요양원을 세우는 등 몇 가지 원력을 중심으로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발원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소종단 스님 위한 전통강원 개방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강원
문턱 없애 교육 기회 확대
"국내 출가자 자질 향상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스님들을 위한 전통강원이 문을 연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는 12월 18일 광주 운천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선암사 특별강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특별강원은 종단 구별 없이 모든 스님들이 전통강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졸업증서가 주어진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선교양종 대본산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강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스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강원을 마련했다"며 "시간이 없거나 군소종단 여건상 교육의 기회를 놓친 스님들이 직접 전통강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해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여건을 고려해 출퇴근과 편입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주 운천사에서 태고총림 선암사 2020년도 특별강원 계획을 설명하는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사진 앞줄 오른쪽).

실제 조계종을 비롯한 일부 대형종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소종단은 출가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출가자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기회가 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태고종 유일의 전통강원을 운영하는 선암사에서 전통강원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선암사 특별강원 참가자격은 종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이면 된다. 또한 강의 방법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진행한다. 매주 수·목요일 2회에 진행되며, 수요일은 2시간, 목요일은 1박2일 또는 출퇴근을 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목요일에는 아침예불과 발우공양 등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할 수 있는 습의(習儀)를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 수준별로 편·입학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1학년(치문반)은 초발심자경문·치문 △2학년(사집반)은 서장·선요·도서·절요 △3학년(사교반)은 능엄경·원각경·기신론·금강경 △4학년(대교반)은 화엄경 △공통은 의식·외전(교양, 문화)을 교육받는다.

전통강원 강주인 성천 스님을 비롯해 불교 경전 강의를 목우 스님이 맡는 등 명망 높은 강사진을 꾸렸으며, 기본강의 외에도 초빙강사를 통해 불교문화, 교양 등 현대적 교육과목도 담아냈다.

이에 대해 주지 시각 스님은 "전통강원에서 대중생활을 하지 않은 스님들은 일상적인 습의를 교육받지 못해 예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특별강원은 상설 교육을 통해 최대한 출가자의 예법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시각 스님은 또한 "선암사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비롯한 대외 활동이 미진했다. 이번 전통강원 개방은 모든 불교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함께 공유하는 도량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선암사는 대웅전 본존불 개금불사와 모바일을 통해 신도대중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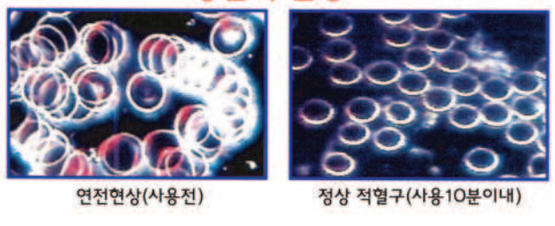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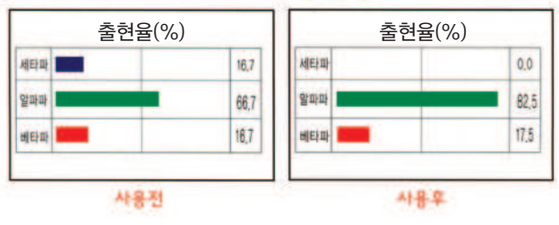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뇌파 측정촬영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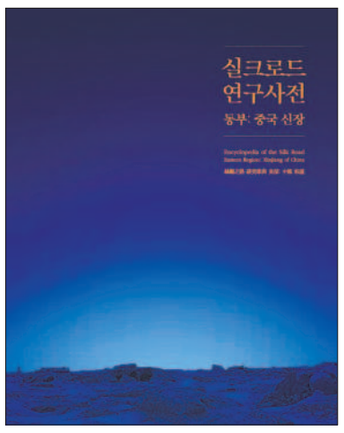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동부 실크로드 연구 모든 것 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크로드 연구사전' 발간

中신장 지역 역사 · 문화 망라
4년간 연구진 30여 명 참여
사진 · 도판 등 시각자료 풍부
2021년 '중앙아시아편'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투루판 베제크리크 천불동 석굴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에 수록된 도판이다.

동 · 서문명 교류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 동부 지역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사전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실크로드 지역인 중국 신장(新疆)의 동부지역에 대한 유적과 유물 연구를 집대성한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중국 신장〉을 발간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실크로드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료수집 · 접근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중국 신장〉은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30여 명의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완성했다.

실크로드와 신장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관 표제어 28건과 주요 지역의 유적 · 유물에 대한 표제어 411건 등 총 439건이 수록됐다.

연구사전은 지리적으로 천산북로와 남로로 나누고, 내용상으로 역사 · 고고 · 불교 · 공예 · 복식으로 크게 구분해 서술했다. 이 외에도 고성(故城) · 무덤 · 불교 사원 · 주거지 · 암각화 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수록했다. 각종 사진과 지도 등 시각자료도 풍부하게 삽입하고 참고문헌과 도판 목록, 색인 등을 충실히 담아내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중국 신장〉은 지금까지 축적된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각을 중심으로 신장 지역을 바라보고자 국내 관계전문가들이 국내 연구 성과와 최근까지의 연구경향을 반영했다.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고대에는 '서역(西域)'이라 불렸고, 파미르 고원의 동쪽에 위치한 투르크의 땅이라는 의미로 '동투르키스탄(East Turkistan)'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의 '신장'은 새로운 강역(疆域)이라는 뜻으로 18세기 청(淸) 왕조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산맥들과 사막, 초원, 오아시스 도시들로 이루어진 신장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동서 문명의 교류가 이뤄졌고, 건조한 사막 기후로 당시의 유적 · 유물들이 잘 남아 있다. 이곳은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많은 탐험가, 조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 고대 문화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고, 실크로드 선상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 양상을 밝히고자 2015년부터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성과물로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국어 번역서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2017)〉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황금문화와 우리나라 고대 국가와의 교류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문화(2018)〉를 펴낸 바 있다. 2021년에는 〈실크로드 연구사전 서부: 중앙아시아〉도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앙아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문화와 고대 실크로드 분야의 지속적인 조사 ·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자성어 '공명지조'

공동체 정신의 필요성 강조해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뜻을 지닌 '공명지조(共命之鳥)'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다.

교수신문은 '2019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을 한 교수 1,046명 가운데 가장 많은 347명(33%)이 '공명지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공명조(共命鳥)'는 〈아미타경(阿彌陀經)〉, 〈잡보장경(雜寶藏經)〉 등 여러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목숨(命)을 공유(共)하는 새(鳥)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공동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분열된 한국사회가 결국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생과 화합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교수 설문조사로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이 제시한 35개 가운데 최종 10개를 골라 전국 교수들에게 설문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상월선원 한국불교 중흥 성지될 것"

교구본사 주지, 14~15일 상월선원서 철야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정진
천막결사 통한 화합 발원해
사부대중 기도 행렬 이어져

"저희들은 상월선원 결제대중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고,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어나가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돼 지켜가겠나이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2월 14~15일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철야정진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도 · 수덕사 주지 정묵 · 은해사 주지 돈관 · 금산사 주지 성우 · 화엄사 주지 덕문 · 송광사 주지 진화 · 대흥사 주지 법상 · 관음사 주지 허운 · 선운사 주지 경우 ·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참석했다.

일정 상 참석하지 못한 본사는 주지 스님을 대신해 본사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본사 주지 스님들의 정진을 격려하기 위한 내외빈들도 함께 자리했다.

철야정진 입재법회에 앞서 상월선원 총도감 혜일 스님(봉국사 주지)은 현재 상월선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혜일 스님은 "상월선원 동안거 1달만에 5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오늘 낮에도 3000명이 선원을 찾아 법회를 열고 기도정진했다. 새로운 신행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재법회에서는 부처님에게 용맹정진 의지를 알리고 한국불교 중흥과 대한민국 화합을 기원하는 고불문과 발원문이 낭독됐다.

대중을 대표해 고불문을 낭독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혹독한 계절이지만 상월선원의 정진은 더욱 뜨겁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도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이 편안해 화합이 이뤄지고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발원문을 통해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특별한 철야정진을 시작으로, 외호대중들은 부처님 지혜를 증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곳곳에 새로운 불교의 등불이 피어나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의 인사말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동참 소회도 이어졌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2월 14~15일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원경 스님은 "분별없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상월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불자들 자존감을 높이고 종단 위상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숭고한 상월선원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입재법회 후에 박범훈 불교음악원장과 봉은국악합주단이 국악공연 야단법석을 펼쳐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대중은 발원결사등 달기와 탑돌이에 이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본격적인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정진을 이어갔다.

한편,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외호대중 기도와 정진 행렬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2월 14일에만 조계종 군종교구와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1500명이 상월선원 순례를 했으며, 약사암 일심선원, 불암사, 진관사, 영천포교당, 영지사, 동국대교수불자회 등이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을 이어갔다. 15일에도 상주108순례단, 망해암 등에서 상월선원을 순례했다.

12월 17일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12대 집행부 스님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외호에 동참했다.

위례= 신성민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젊고, 함께하고, 화합하는’ 포교 한해

[2019 포교 · 신행 결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탈종교화와 탈제도권종교화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전법 포교분야의 변화는 지속됐다. 지난해 모바일과 SNS포교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으며, 청년 포교 활성화와 대중 수행법 보급을 통한 수행가풍 진작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포교 신행분야의 이러한 움직임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다.



올해를 수놓은 포교 장면. 사진 왼쪽부터 경불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기념식, 포교원 작가 모임, 중앙신도회 수행바라미, 포교사단 11대 사단장선거.

[캠퍼스 포교] 첫 번째 키워드는 ‘캠퍼스 포교’ 다. 올 한해는 포교 신행분야에서 청년포교 활성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특히 각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학생회의 복원과 기존 학생회실 리모델링, 캠퍼스 연합법회 활성화로 인해 캠퍼스 포교 부흥의 원년이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가장 먼저 3월부터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불교학생회가 연합법회를 새로 구성하며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이끌었다. 명상 구루 초청 강좌 등 문화공간 숨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은 교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맥이 끊겼던 불교학생회도 복원됐다. 6월 서울교대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금강대불교학생회 등의 복원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주도로 경희대 경불회 캠퍼스 동아리실 리모델링 등도 이어졌다.

대학 포교 활성화 시동
인플루언서 관리도 나서
5대 수행법 보급 과제로

[인간 불사] 두 번째 키워드는 ‘인간 불사’ 다. 지난해 모바일과 SNS포교를 시작한 조계종 포교원을 필두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한해동안 진행됐다. 크게 호평을 받은 작가 템플스테이가 매달 진행됐으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회의까지 11월 21일 열리는 등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불교크리에이터 1기도 공식적으로 위촉돼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시대 흐름은 미디어의 영향력 확산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1명의 문화 크리에이터가 수백명의 포교인력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불교는 처해있다. 앞으로 이러한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행 바라미] 세 번째 키워드는 ‘수행바라미’ 다. 조계종의 5대 수행법 제창을 골자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5대 수행법에 맞는 수행바라미 정진연수를 진행했다. 수행바라미는 신도조직 실무자들이 수행도량 5곳을 찾아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개 주제에 대한 법문과 실참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국 불자들에게 조계종 5대 수행법 보급을 위해 선도적으로 중앙에서 진행 됐다. 새해에는 수행바라미에 근간한 5대 수행법이 불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길 기원해 본다.

[갈등과 화합] 네 번째 키워드는 ‘단체 갈등’ 이다. 집행부 일괄 사태 파문이 일은 포교사단부터 재정 이슈가 터진 불교여성개발원 등 많은 단체들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다. 올해 3월 포교사단은 11대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표출됐다. 포교사단장 선출방식을 둔 갈등으로 포교사단 단장과 부단장 등이 일괄사퇴한 것이다. 이에 포교사단은 긴급TF를 구성하고 3월 10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또 10월 22일 방창덕 직무대행을 11대 포교사단장으로 선출했다. 포교사단은 내년 창단 20주년을 맞는다. 단복 개선과 포교전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갈등을 딛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포교 일선의 움직임에 격려를 보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 10명 확정

12월 16일, 회의서 자격심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 10명 전원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2월 16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 등록한 10명 전원에 자격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주캠퍼스총장 선거에는 구본철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세곤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규 의과대 교수, 김의창 정보경영학과 교수, 김흥회 행정 · 경찰공공학부 교수, 류완하 미술학과 교수, 박병식 행정 · 경찰공공학부 교수, 박용기 한의학과 교수, 신흥묵 한의학과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 등 총 10명이 후보자로 나서게 됐다.

경주총추위는 토론회와 소견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2월 27일 열리는 소견발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캠퍼스 로터스홀에서 진행된다. 15분의 발표에 이어 2명의 경주총추위원 질의에 10분간 답변한다.

한편 경주총추위는 12월 19일 공개토론회를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최봉석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찬불가 가창쇼’ 등 새 포교 모색

포교원, 12월 21일 불교크리에이터 1기 결과공유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불교 SNS채널운영 지원사업으로 발굴한 불교 크리에이터 1기의 결과공유회를 12월 21일 서울 포레스트 구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SNS채널에서 불교 콘텐츠 창작 활동을 펼친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네 달여 간 활동하며 만들어낸 콘텐츠를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고,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크리에이터들은 불교 SNS채널운영지원사업 선정 후 가장 도움이 된 것에 대해 ‘종단에서 응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 ‘활동과정에서 생긴 언론방송 출연 및 인터뷰 기회’ 등을 들었다.

또 불교 SNS채널 운영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주기적인 콘텐츠 업로드’ 와 ‘장비부족 및 편집역량 부족 등 기술적인 부분’ 을 답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아이고절런’의 운영자 강산 크리에이터는 〈안녕, 불교〉 뮤직비디오를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불교의 매력 포인트’ 를 말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더하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크리에이터들이 재지원시 주제 및 형식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리에서는 어린이불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찬불가 가창쇼 등이 제안됐다.

포교원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생각을 모으다 보면 각자의 장점을 살린 공동창작 콘텐츠도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있을 동일 사업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침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교원은 불교 크리에이터 2기 발굴을 통해 불교 콘텐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일반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에도 공심으로 불법 홍포”

포교원 · 중앙신도회 12월 17 · 19일 송년법회

조계종 전법단 등 한자리에
신도단체 표창 통해 격려
국제포교사 등도 전법 다짐

조계종이 포교신도단체 송년법회를 통해 새해 새로운 변화에 맞는 포교를 전개할 것을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2월 17일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열린 포교 · 신도단체 송년법회에서 “한 해 동안 포교 전반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새해에는 포교 전반에서 새로운 바람이 이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공심과 원력으로 정진해 나가자. 불교 포교를 위해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송년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스카우트협회, 공무원불자연합회, 불교상담개발원 등 단체 대표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2월 17일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송년법회에 참가한 포교, 신도단체 임직원들이 불법 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신바람 나는 포교 활동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으며, 정한신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불교 포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포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12월 19일 전법회관 2층 회의실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법회서는 2019년 한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국 신도단체 중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표창을 받은 신도단체 지부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부와 대전지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경상부산지부,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부, 불교차인중앙회 인천 남동구지부와 경기 김포지부,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서울경기강원지부와 호남지부, 체육인불자연합회 경남지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와 대전지부, 부산지부, 언론사불자연합회 KBS지부 등이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도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와 송년법회를 열고, 새해 전법의지를 다졌다. 김성림 국제포교사회장은 “조직역량 강화와 구성원 결집을 위해 새롭게 활동할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지도자協 지도자 129명 배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12월 13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명상지도자 워크숍과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명상전문지도사 과정은 총 4개 과정으로, 1급 51명, 2급 50명, 전문가 20명, 수련감독 8명, 총 129명이 자격증을 획득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명상이 세상에 펼쳐져 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발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 원로이자 동사섭 행복마을 회장 용타 스님은 “명상지도자협회가 불교를 넘어 명상지도자들의 모임이 돼야 한다”며 “한국에 있는 명상 지도자들의 모임.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명상 지도자들이 모여서 뭔가 한 번 움직여 보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증 수여식 이후에는 용타 스님을 비롯한 협회 소속의 명상 지도자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12월 2일 열린 '백만원력 결집불사 발우저금통 여는 날'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저금통의 동전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11월 11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방부를 들이고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 후 모습. 20년에 걸쳐 해체 · 복원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념법회서 스님들이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고타마 싯다르타 고행상 앞에서 예불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나온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전국 불교계의 동참도 이어졌다.

한국불교 중흥 불사 · 결사 시작되다

현대불교 선정 2019년 10대 뉴스

2019년 한국불교도 다사다난했다. 사회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으며, 백만원력 결집 불사와 위례천막결사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사업들이 시작됐다. 한 해동안 한국불교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 · 정리했다.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하나로 모인 보살들의 원력

2019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단순히 수행과 보시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사부대중의 손으로 직접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 · 법 · 승을 주제로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 △육해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복지 확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에서 대대적인 모연운동이 전개됐으며, 37년 도반인 설매 · 연취 보살이 부다가야 사찰 건립기금 50억 원을 희사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조계종은 이 같은 원력을 모아 내년 부다가야 사찰 '분황사'의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용맹정진

지난 11월 11일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부지에서 한국불교사에 유례가 없을 새로운 결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도림 · 인산 스님은 상월선원이라고 명명된 비닐하우스 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9명의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삭발 · 목욕 금지 등의 청규를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까지 제출하고 무문관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달여 가 지난 현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 대중들의 야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운동의 독립정신, 불교계서 재현

올 한해는 민족 독립을 위한 3.1운동의 정신이 불교계에서도 다시 펼쳐진 한해였다. 먼저 3월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100주년 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계는 3.1정신과 독립선언문이 민중을 감싼 미륵보살의 하생(下生)과 같다고 상찬하며, △사회 분열 및 갈등 행위 배격 △중도와 화쟁 사상으로 화합 △무력과 폭력행위 비용납 △적극적인 남북교류 지지, 평화정착 실천 등을 다짐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 완료

20년 동안의 해체 보수 끝에 새로 복원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지난 4월 30일 대중에게 공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추정에 의한 복원이 아닌, 원래의 부재를 81%까지 최대한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감사원의 문제 제기로 다시 '원형 복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림 해제된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총림 백양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결의로 11월 6일 총림의 지위를 잃었다. 前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주지 토진 스님과 대중의 소통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주지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주지 토진 스님은 총림 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백양사 대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파키스탄 고행상 한국전시 가능성

조계종이 파키스탄 정부 초청을 받아 11월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중진스님들은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부에 라호르박물관이 소장한 싯다르타 고행상의 한국전시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파키스탄 행정수반인 임란 칸 총리를 비롯해 라호르를 관장하는 초드리 모하마드 사르와 펀자브주 주지사는 "고행상뿐만 아니라 어떤 불교유물도 가능하다"고 화답해 머지않아 고행상의 한국전시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싯다르타 고행상은 일본에서 전시된 적이 있으나 한국전시는 한 차례도 없었다.

韓日갈등에 불교계도 'No Japan'

연 초부터 이어진 한일갈등은 8.15광복절을 앞두고 반일운동으로 점화됐다. 대한불교청년회를 비롯한 불자 청년들과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는 반일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대한불교청년회는 광복절을 앞둔 8월 13일 청년단체들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반일 플래카드를 전법회관 등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또한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선 불자대학생들의 반일운동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심 뜨겁게 결집한 '佛都 부산'

2019년은 부산 불심이 하나로 결집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올 한해 동안 만명 이상이 운집한 불교계 행사는 대부분이 부산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도 부산의 불심은 뜨거웠다. 올해 3월 출가열반재일 대규모 승보공양으로 시작된 부산 불심의 결집은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7월 6일 합동수계법회에 이어 10월 20일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로 이어졌다. 합동수계법회서는 2000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지계의 삶을 서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는 10만명의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위해 모여 장안의 화제가 됐다.

지성불교 산실 〈불교평론〉 20돌

불교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1999년 '20세기 한국 불교의 회고와 반성'을 주제로 창간호를 낸 후 〈불교평론〉은 '기복(祈福) 불교' '대승불교 정체성' 등 불교계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특히 〈불교평론〉은 그동안 기존 불교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시대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다룬 기획만 1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번 기획과 특집을 통해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고민했다.

지난 8월 30일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불교평론〉 창간 20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영화 〈나랏말싸미〉와 신미 대사 논쟁

지난 7월 23일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때아닌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개신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와 통신사 〈뉴시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세종은 신미 대사의 존재를 몰랐기에, 신미 대사가 한글 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영화의 내용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국어학자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세종 단독 창제'라는 신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협력설'과 '범어기원설'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불교계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단체관람도 이뤄졌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빛고을 광주 도심포교 30년 결실

청빈암, 창건 30주년 기념법회… 자비나눔도



광주 청빈암(주지 정현)이 창건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사찰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청빈암은 12월 14일 회주 월용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정현 스님을 비롯해 운문사 강원 도반스님,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정목 스님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사진>

청빈암은 지난 1989년 월용 스님이 창건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왔다. 2001년 일반 주택지역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한 청빈암은 2014년 제3대 주지 정현 스님의 취임으로 지역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 지원과 선방 대중공양, 운문승가대학 후원, 지산동 연화유치원 후원 등으로 외연을 넓혔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자비신행회, 연화유치원과의 후원협약식에 이어 광주불교연합회에 쌀 500kg과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현 스님은 "그동안 부처님 만난 것, 스님이 된 것, 좋은 부모를 선택한 귀한 인연들을 잊고 살았다.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청빈암은 향후 불교유치원 지원을 통한 교육포교, 자비신행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단체 지원, 매년 석·박사 스님들에게 장학금 지급, 신도들의 개인별 상담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백나한 100일 수행 공덕

청도 운문사, 오백나한 100일기도 회향법회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는 12월 15일 경내 오백전에서 '제41회 오백나한 1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오백나한 100일 기도는 운문사가 1978년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이라는 슬로건을 세워 41년째 이어온 법석이다. 당시에는 학인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프로그램이 됐다.

운문사 회주 명상 스님, 율주 일진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진광 스님,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해 박순곤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법회는 천수경 독송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서 명성 스님은 운문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세불과 협시보살 등을 설명한 뒤 "지금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며 "실제회향, 보살회향, 중생회향의 회향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아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박순곤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운문사 신도님들과 같이 정성을 다해 기도 드리는 일이 참으로 기쁘고 고맙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지팥죽으로 새해 희망 전달

울산 벽선암, 팥죽 1000인분 시민과 나눠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은 12월 14일 울산 홈플러스 북구점 정문 앞에서 '제7회 문화와 함께하는 야단법석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나눔행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동지팥죽 1000인분을 참여한 모든 시민과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벽선암은 지역 경로당 30곳에 팥죽 20인분을 점심공양으로 각각 전달하고 건강을 발원했다. 팥죽 나눔에 이어 벽선암은 신명나는 노래와 춤으로 시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벽선암 주지 혜진 스님은 "매년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며 "한 그릇의 팥죽으로 건강과 행복한 마음으로 올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가 수행' 부산포교사단 다짐

2019년 전진대회 및 25교구 성지순례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2월 1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25교구본사 성지순례 회향식 및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2019년 전진대회를 개최하며 새롭게 다가올 2020년에도 포교를 수행삼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2년간 이어온 교구본사 성지순례 회향식도 진행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 이하 부산포교사단)은 12월 1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25교구본사 성지순례 회향식 및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포교사단은 2018년 3월 직할교구 조계사를 시작으로 매월 교구본사 성지순례와 기도를 진행해왔다. 성지순례를 통해 화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부산지역단 회관 건립을 목표로 세워 회비를 모으고 통깨 등 생활용품을 팔아 수익금을 모았다. 기도 원력으로 하나 된 부산지역단은 지난 7월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성지순례 회향식에서 부산포교사단은 다시 한 번 회관 이전을 축하하며 저력을 보여준 부산포교사단 단원들을 격려했다. 부산포교사단은 그동안 진행한 성지순례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붓다로 살자' 발원문을 낭독하고 포교사의 삶을 다짐했다. 이어 공로상 및 개근상 등을 개인과 팀별로 시상하며 축하했다. 이날 순례기간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참여해 응원 독려해준 53명의 포교사에게 교구본사 직인이 담긴 액자를 상품으로 전달했으며, 특히 새벽마다 순례단을 위해 아침공양을 손수 준비한 엄재순 포교사에게 특별 공로상이 수여됐다.

2018년 3월 시작한 성지순례
25개 교구 돌며 포교원력 다져
부산포교사 포교활동 격려하며
"기도 원력으로 불교 중흥 발원"

이어진 전진대회는 △개회선언 △단기입장 △삼귀의 및 반야심경 △인사말 △격려사 △치사 △상장수여식 △11대 부산지역단 임원진 소개 △축가 △회관 건립 공로상 시상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포교원 사무국장 현주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 부단장,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전진대회에서는 포교원장상 및 총재상 등을 시상하며 포교사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포교원장상은 하갑봉 포교사가 수상했으며 총재상은 윤옥란 포교사, 디지털대학장상은 강현중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또 포교사단장상은 강동숙 · 조선현 · 김진홍 포교사, 부산지역단장상은 장호원 · 이종배 · 신병용 · 정옥순 · 유정해 · 이지수 포교사가 받았다.

정분남 단장은 "부산지역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발전의 토대를 이뤄 무엇보다 기쁜 한 해였다"며 "11대 집행부와 함께 수행하며 포교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성장을 목표로 다시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포교사단 11대 단장은 정분남 단장이 연임했다. 정분남 단장은 금강경 독송으로 매일 수행을 강조하고 나눔 활동 및 성지순례를 이어갈 방침이다.

맑고향기롭게 "봉사는 세상 맑히는 힘"

제7회 부산자원봉사 시상식
최복순 봉사자 대상 선정돼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12월 16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제7회 부산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수상자 최복순 자원봉사자(앞줄 오른쪽 두 번째).

"쌀도둑으로 오해 받아도 봉사를 쉬지 않았어요. 봉사가 세상을 맑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고통 받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암으로 고통 받아도 삶의 이유이기에 봉사를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해 보살핀 대상자에게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봉사하며 보시바라밀을 실천한 봉사자들의 수상 소감이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12월 16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제7회 부산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자원봉사자 대상은 봉사정신이 세상을 맑히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를 찾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봉사대상 수상자는 최복순(70) 봉사자이며 상금 1000만원과 표창패가 수여됐다.

최복순 자원봉사자는 2000년 8월 적십자 봉사원으로 가입 후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재해구호활동으로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김해 한림면 이재민을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부산 연지동 침수피해 주민구호, 태안 기름유출 재해구호 활동을 담당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봉사활동을 위해 노인수용시설 신망애양로원 방문봉사를 실시하고 조손가정 결연 봉사활동, 선양 복지관 급식 봉사활동 등을 펼쳐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최 씨는 △장애인 복지 봉사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헌혈의 집 봉사활동 △희망풍차결연 △사랑의 빵 · 국수 나눔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 위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추진 등 봉사의 삶을 이어갔다.

최우수상은 강정림(59) 봉사자가 수상했으며 상금 500만원과 표창패, 우수상은 조재숙(57) 봉사자와 정춘자(77) 봉사자가 받았다. 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각 200만원과 표창패가 수여됐다.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은 "나눔이란 다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가치"라며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몇 배로 커질 것이다.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그간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자원봉사자 대상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과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이 특별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자원봉사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현묘명을 사람은 산부

행위 아닌 존재를 칭찬하라

주제 : 칭찬의 기술과 효과

법상 스님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은… 불심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부터 인터넷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현재 부산 금련사 주지 소임을 맡아 불교아카데미를 열고 불자들의 마음공부를 돕고 있다.

사람은 칭찬에 목마르다.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은 12월 15일 부산 금련사 일요법회에서 보현행원 제2 칭찬여래원을 중심으로 칭찬의 기술을 설명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오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 제2 칭찬여래원입니다. 먼저 경전을 읽어보죠.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 시방삼세 · 모든 세계의 낱낱 티끌 가운데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심에, 내가 마땅히 깊고 수승한 지혜와 눈앞에서 확인하는 지견으로."

경전에서 모든 여래를 칭찬하고 찬탄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절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세계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티끌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탱화만이 아니라 물과 바람, 햇살, 풀 한 포기, 식물, 동물, 사람들 등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2,500년 전 태어나신 부처님은 화신이지만, 참된 부처님은 법신(法身) 부처님입니다. 법신불은 곧 우주법계 전체가 부처님의 몸임을 뜻합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일체 만유가 전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망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진실이 안 보일 뿐이죠.

또한 경전에서는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탱화만 보더라도 중간에 부처님이 있고, 좌우에 협시보살과 팔부신중, 사천왕 등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죠. 이 말도 중요한데요, 티끌 티끌, 중생 중생이 전부 부처일 뿐 아니라, 그 부처님 주변에는 무한한 자비의 화신인 보살님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보살이란 하화중생이라고 해서 일체중생을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는 분입니다. 즉 보살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주변을 무한한 자비와 사랑, 지혜가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무한한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호와 가피를 매순간 받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나를 돕는 무한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는 가피가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불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자비롭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웅전에 후불탱화를 보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 분들 중에는 무서운 표정을 지닌 사천왕이나 팔부신중도 계시고, 보살님 또한 예를 들어 십일면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화내는 표정, 자비로운 표정, 익살스런 표정 등 다양한 표정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처님 주변을 다양한 표정의 존재들이 에워싸고 보호하듯 내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자비로운 손길도 있지만,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들도 있고 나에게 화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내는 표정으로 나타난 나를 에워싸는 보살님의 화신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고, 삶을 배우게 하며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없이 바라보면, 지관(止觀)하면, 울고 웃을 일들 모두가 전부 그대로 부처님의 화현이며, 우리를 돕는 무한한 자비의 손길이고 가피이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그 속엔 행위가 강화되길 바라는
칭찬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긴다
판단 없이 관심을 주는 게 중요

이렇듯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머릿속에서 남들과 비교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분별의 눈으로 볼 땐 나와 남의 다툼이 끊임없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 같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공격할 실체적인 적은 내 외부에 없습니다. 이 온누리는 그대로 법신불의 장엄한 세계일 뿐입니다. 내 안의 분별이 유일하게 나를 괴롭다는 환상으로 빠지게 만들 뿐이지요.

이처럼 삼라만상이 전부 부처님 아닌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인 칭찬여래원이 그 답입니다. 나를 에워싼 모든 불보살의 화신인 구름, 하늘, 바다 등 온 우주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는 칭찬을 보내고, 또 공덕을 찬탄하고, 그 무한한 공덕 덕분에 내가 매순간 살아간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수희찬탄(隨喜讚嘆)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의 기쁜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대지도론〉에서는 수희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구나' 라고 마음 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흔히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돈이 없는 내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의 재력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칭찬여래원, 수희찬탄에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잘난 사람을 보고 진정으로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면 나도 그와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공부입니다. 사실은 유심연기(唯心緣起)라고 하듯, 모든 것은 마음에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바깥 경계란 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서 일으킨 공덕이 현실로도 구현됩니다.

얼마 전 종단불사에 50억 원을 보시한 보살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공덕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탄한다면, 나에게도 50억을 보시한 것과 다르지 않은 공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처럼 칭찬하고 수희찬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위대한 공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마음공부 실천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無爲

이제 고등학생들의 수능시험도 끝나고 다들 대입 합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남의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우리 자식이 못 가면 배가 아프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진정으로 기뻐하면 나에게 같은 공덕이 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되는 걸 내 일처럼 축하해주면 나의 현실에서도 이뤄지기 쉽습니다. 부처님 법을 찬탄하면 내가 그 법을 구현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칭찬이 무조건 좋은 줄 알지만 역효과를 가져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십일면관음보살님의 표정에 화내는 모습도 있죠. 큰스님들이 누군가의 잘못에 버럭 화를 내다가도 자비로울 때는 또 한없이 자비로운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입바른 칭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유위(有爲) 상태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은 무위(無爲)를 강조합니다. 명상에서도 행위(Doing)가 아닌 존재(Being)를 말하죠. 참되고 올바른 칭찬은 그 사람이 잘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는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부모는 자식을 내 뜻대로 통제, 조종하기 위한 방편으로 칭찬을 활용합니다. 지금 그것을 잘하니까 계속 더 잘하라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는 기쁘기보다, 부담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칭찬의 결과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집니다. 외부의 권위자, 부모의 인정에 쩔쩔매고, 칭찬받기 위해 눈치 보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험에서도 증명됐는데요. 단어를 외우게 하고 너무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준 뒤에 외운 단어를 칠판에 최대한 적어보라고 하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칭찬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고 자유롭게 뛰어놀지만, 칭찬을 받은 아이는 불안해하다가 결국 70% 정도가 선생님이 두고 간 단어카드를 컨닝합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할까요? 먼저 잘 한 행위를 칭찬하기보다 아무 것도 안 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 줍니다. 두 번째로 통제 조종하기 위한 칭찬이 아닌, 그저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말이 좋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화가 기질이 있다든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하는 것 보다는 분별없는 시선으로, 아이를 판단 없이 지켜본 것을 말해줍니다. "그림 그리고 있구나" "파란색으로 그렸네"라고 판단 없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아이는 부모가 판단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칭찬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파란색으로 그렸구나. 어떤 의미니?"라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을 주려는 이유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분별심 때문인데요, 질문을 하는 것은 너라는 부처님은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았니 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에, 그의 답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질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아이와 부모를 분별된 수직적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너도 온전한 부처님, 나도 부처님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중생이 못난 중생에게 가르치는 건 칭찬여래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같은 여래로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위를 살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반려동물, 내가 먹는 밥, 입는 옷까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와 연결돼 있는지 느끼고 찬탄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56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6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신화랑 캠프!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기 간 : 1월 5일(일) ~ 1월 18일(토) 2주 (각 1주간 또는 총 2주간 신청 가능)
■ 대 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각 주차별 60명)
■ 수련회비 : 1주 – 42만원 / 2주 – 8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계좌안내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화랑수련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unmudoschool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744-1689

2020년 동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접수

호연지기와 인성 함양 프로그램	원어민과 함께하는 캠프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학습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학습
·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승마/국궁 ·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다도 등) ·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 동경주 유적답사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왕릉. 주상절리	· 전통 과자 및 먹거리 만들기 · 놀이를 통한 마음나누기 · 효도 마사지. 호신술 배우기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보조사상 선양과 혁신 펼친 도량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㉔ 서울 법련사



경복궁 동십자각 사거리에 위치한 법련사 전경. 법련화 보살의 보시와 김우중 회장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법련화 보시와 재벌 후원 콜라보

안국동에서 경복궁을 향해 걷다가 동십자각을 보고 오른쪽으로 돌아 삼청동 쪽으로 가다 보면 법련사가 있다. 이곳은 1973년 11월 김부전(법련화) 보살이 종로구 사간동의 대지와 건물을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로 희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재벌의 후원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하였다.

1922년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한 김부전은 1940년 금강산 정양사에서 설법을 듣고 발심하였다. 광복 후 서울로 거처를 옮긴 그녀는 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서울 도봉산에 불교양로원을 설립하였고, 1953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광명보육원을 설립하는 등 신앙심이 바탕이 된 복지활동을 시작하였다.

1954년 이후 정화운동을 지지하면서 만난 효봉 스님의 '수행자는 될 수 있는 한 가난해야 하며, 물건을 적게 가져야 조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무소유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불교와 사회를 위해 나누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사업에 수완이 있던 그녀는 1957년 광화문에 있던 국제극장 사장이 되었고, 재산을 모으면서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58년 마야부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조계사 불교정화운동 기념회관 건립 등에 큰 공덕주가 되었다. 이어 1959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의 섭외부장과 부회장을 맡는 등 여러 공적활동을 이어나갔다.

효봉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녀는 송광사와 많은 인연을 지었다. 중창불사는 물론 효봉 스님의 다비식과 사리탑 건립에 큰 공덕주가 되었다. 그리고 송광사에 조계총림이 설립되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후원단체인 서울불일회 결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73년 11월 세연의 다함을 느낀 보살은 종로구 사간동 자택을 조계총림 서울분원으로 할 것을 유언하였다. 송광사로 내려간 그녀는 17일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였다. 수행자로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오후 3시 눈을 감았다. 자택은 그녀의 법명을 따라 법련사가 되었다.

1974년 송광사 서울 포교당된 연 법련사는 오래된 한옥인 탓에 1990년대 이르자 많이 낡은 상태가 되었다. 이곳이 지금의 대웅보전이 들어서 도심포교의 장이 된 것은 얼마 전 타계한 김우중 회장과 부인의 후원이 결정적이었다.

김 회장은 천주교 신자였지만 부인 정희자 여사는 독실한 불자였다. 그들에게 슬픔이 있었다. 1990년 미국에서 유학하던 장남 선재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 한 것이다. 23세의 금쪽같은 아들을 잃은 내외는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부인의 마음을 위로할 겸 송광사를 찾았다. 불일암에 있던 법정 스님을 만난 내외는 서울에서 재회할 것을 약속하였다.

얼마 후 서울 법련사에서 김 회장 내외와 법정 스님, 현호 스님이 재회하였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히 낡은 법련사 재건이 화제가 되었다. 이야기를 듣고 독실한 불자인 정희자 여사가 남편에게 "우리 선재를 위해서 절을 지어 드리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즉석에서 재건축을 약속한 김 회장의 후원과 오래 동안 법련사를 원찰로 신행 활동을 한 불자들의 동참으로 1996년 현대식 디자인의 법련사가 건립되었다. 김 회장은 사돈인 금호그룹 일가와 함께 범종을 조성하였다. 3층 대웅전 앞에 걸려 있는 종이 그것이다.

작은 사찰에 담긴 큰 의미

법련사의 시작이 1974년이고 1996년 5월 지금의 대웅보전을 갖추었으니 연혁 만으로 보면 서울의 여느 사찰보다 미약하다. 그러나 법련사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음미하면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수많은 수행자가 배출되었다. 고구려의 승랑, 백제의 겸익, 그리고 신라의 원광 자장 원효 의상.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활동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고려와 조선시대 역시 많은 수행자가 배출되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불교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르렀다.

오래전부터 한국불교사를 공부하면서 고승 가운데 어는 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 고민해 봤다. 처한 시대와 활동이 모두 다르고 당시의 영향을 생각하면 모두가 강호의 맹장이라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중생의 분별심을 동원해 구분하면 현재까지 전해지는 영향력에 있어 보조국사 지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구분은 절대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다.

보조사상硏 두고 학술연구
불교사상 비교 · 발전 토대
한국불교 대중화 이끌 터전

송광사를 중심으로 계승된 보조사상을 보면 역사적 유구함이 크다. 고려시대에는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을 시작으로 면면히 이어져 200년이 넘도록 계승되었고, 배불이 심했던 조선조에도 불교의 규범만큼은 보조국사를 따랐다. 중기까지 서산 휴정에 의해 보조국사의 선교일치 등이 계승되었다.

근대불교에서 보조국사의 사상을 재흥하고자 노력한 수행자는 경허 스님이었다. 그는 근대불교의 중흥조로 쓰러져 가는 불맥을 유지하기 위해 1899년 해인사 조실로 주석할 때 수선사를 결성하고 선의 중흥을 도모하였다. 그에게서 법을 배운 만공 스님과 한암 스님 역시 결사를 조직하고 선풍을 진작시켜 보조국사의 결사정신을 계승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종풍 계승은 면면히 이어졌다. 그 중심인물이 효봉 스님이었다. 그는 불교의 중흥과 선풍진작의 뜻을 세웠고, 필요한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2의 정혜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송광사 삼일선원에서 3년의 정혜결사를 시작하였다. 이런 결사정신을 계승한 구산스님은 송광사에 수선사를 재건하여 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데 주력하였다. 고려, 조선, 근 · 현대를 걸친 영향이 아닐 수 없다.

보조국사 지눌 이외에도 한국불교에 영향을 끼친 고승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국사를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국사의 행적과 사상이 현대화되어 그 누구보다도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조국사의 현대화 대중화에는 법련사의 역할이 크다.

법련사는 송광사 서울분원이다. 송광사가 어떤 곳인가? 한국불교의 승보사찰이다. 보조국사 지눌 이후 16국사가 배출되어 한국불교 수행의 대명사가 된 곳이다. 이런 까닭에 법련사 역시 그 연원은 짧지만 보조국사의 사상적 유훈을 널리 알리려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보조사상연구원의 활동이다. 연구원은 1987년 2월 송광사에서 창립되었지만 활동 대부분 이곳 법련사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까닭에 송광사가 고려, 조선, 근대를 거쳐 지속된 전통을 계승한 곳이라면 법련사는 그런 보조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고 그 내면을 성찰하는 학술적 꽃을 피운 곳이다. 작은 사찰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법련사와 보조사상연구원

1987년 2월 22일 송광사는 보조사상연구원을 개원하였다.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불일보조국사의 사상과 가풍을 연구 계발하여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불국토 건설이 목적이었다. 이것은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통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도적 자세였다.

연구원은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방향에 있어 첫 번째 보조국사의 사상과 종풍의 연구계발 및 선양을 위한 일과, 보조국사 전서의 간행과 연구논문집의 간행 및 번역 학술발표 등을 하였다. 그 결과 1989년 〈보조전서〉가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전서는 지금까지 간행된 보조 저술의 여러 판본을 대조 교열하고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아 하나의 정본을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특기할 것은 수많은 전적을 들추어 가면서 본문에 나오는 인용문의 출처를 밝혀 보조사상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

1987년 11월 제1집이 발간된 학술지 '보조사상'은 현재 제55집으로 이어졌다. 매월 진행된 월례발표회는 133회에 이르렀고, 매년 가을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도 27차에 이르렀다. 그리고 창립 이후 격년으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역시 보조사상은 물론 한국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법련사가 보여준 새로운 지평

이와 같은 보조사상연구원의 활동으로 보조국사에 대한 연구는 그 양과 질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1990년대에 이르면 보조를 연구하는 학자의 층이 두터워져 박사학위 논문이 12편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연구논문 역시 152편이 발표되어 한국불교계에 보조 연구의 정점을 이루었다.

연구된 내용을 보면 선사상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불교사상의 비교, 돈오점수, 보조의 역사적 위상, 보조와 다른 사상과의 비교연구, 정혜결사, 그리고 조계종 법통에 관한 연구 순이다. 이때 연구의 담당자 대부분이 젊은 연구자였다. 이들은 1987년 설립된 보조사상연구원이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199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젊은 학자들이 보조국사에 대해 왕성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불교 내에서 보조사상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현대에 이르러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와의 논쟁에서 보조의 선이 돈오점수를 지향하였다고 해서 그 가치를 하향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국사는 현대 불교 학자들에게 영향을 줄만큼 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1990년대 이르러 한국불교에서 일어난 비승가적 모습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보조국사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보조국사는 무인정권 시대에 권력지향적인 불교계에 자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가치는 8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가장 절실한 가치로 인식되어 미래에도 한국불교의 좌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불교가 현대화되고 대중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화, 대중화는 옛 전통을 박제된 모습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언어로 그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재탄생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련사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800년 전 인물인 보조국사 지눌을 현대의 대중들에게 새롭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 사찰이다.

한국불교사에는 고승이 많다. 그가 활동한 사찰도 많다. 어느 곳이던 30년 지속해서 연구하면 현대화, 대중화 된다. 어떤 불사보다 뛰어난 불사이고 한국불교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끝〉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佛法 따르는 '작은 울림' 되길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㉔ 부디스트코칭을 마무리하며



그림 · 박구원

풍경 하나

한밤중에 물구나무를 서본 적이 있나요?

두 팔을 땅에 대고 거꾸로 몸을 세우는 물구나무, 구도자의 자세로 불릴 만큼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벽에다 다리를 기댄 후 차츰 발을 떼는 훈련을 하면서 꼿꼿하게 서보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동네마다 있는 생활체육 공원에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운동기구가 있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팔을 땅에 바로 붙이지는 못하지만 다리를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세우고 얼굴을 땅바닥 가까이로 대는 이 자세는 의외로 몸과 뇌에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위하수 증세로 가끔 위통을 겪다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물구나무를 해보았습니다. 종일토록 직립하는 몸속에 뭉쳐서 버티고 있던 내장이 순간 그 꼬임을 풀고 편안해하는 기분이 전해집니다. 꽉 찬 보자기를 풀어주어 제대로 숨을 쉬는 듯한, 한 순간 명징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맛본 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에 공원에 나가 해본 적이 있었지요. 기구에 발을 고정하고 머리가 밑으로 천천히 내려갈 때 겨울나무의 마른 가지와 이파리가 한 무리씩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이로 별이 보입니다. 나무를 올려다보지 않고도 별과 함께 떠있는 나무의 몸이 나에게로 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보지 못하던 풍경입니다. 머리와 다리의 자리를 바꿔 거꾸로 했을 뿐인데 미처 보지 못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을 '관점 바꾸기'라고 합니다. 익숙한 시각과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꾸로 보아야 그 실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을 손에 쥐게 됩니다.

추운 밤 별을 보며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존재의 생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팔이나 다리에 적절한 힘을 주고 머리의 각도를 알맞게 유지하려 애써야 하기 때문에 온 정신을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몸 각 부위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요가에서는 물구나무를 도립선(倒立禪 거꾸로 선 자세의 명상)이라 하여 최상의 명상 자세라고 하지요. 거꾸로 선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뜨거운 머리가 아래로 가고 차가운 발이 위로 가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상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이 위로 가고 물은 아래로만 가는 평소의 서 있는 상태와는 반대가 되어 불이 물을 데우는 생명력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경 둘

이 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손녀 아이가 소원하던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손녀에게 제1양육자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 손을 가장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다지 살갑지 않은 성격이라 엄두를 못 내었는데 묵은 나이 덕인지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손녀의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부쩍 관심이 동한 덕이기도 합니다.

동물 가족을 들임으로써 생기는 수고와 번잡함과 비용을 면밀히 따져보았는데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만족과 새로운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고 겁을 주는 지인도 있었고 가족으로 사랑하다가 먼저 떠나보낸 경험으로 그 상실감을 생각하라며 경고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하는 반면 키워보지 않은 이는 어렵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더군요. 여러 곤란을 겪어도 동물과 한 가족이 되는 충만함을 알게 되면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완강하던 남편의 반대는 손녀가 애교 섞인 친필 편지로 물리쳤습니다.

주변에 수소문을 해 드디어 생후 두 달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먼저 지어두었습니다. '홍시'입니다. 이쁜 과일 이름 중에서 고르다가 입에도 붙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어서 1차 후보로 택했습니다. 어떤가요? '홍시야~' 하고 부르면.

딸아이와 손녀와 함께 홍시가 입을 옷과 머물 집, 데리고 가야할 곳 등을 공부하며 사랑을 시작하는 일을 너무 두려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서는 쉽게 하는 일에 유난히 요란을 떤다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새로운 돌봄과 사랑을 시작하는 데에 망설임과 인색함이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본 강아지의 눈망울이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한께 살아갈 기족으로 자신을 데려가기 원한다고요, 다시 글을 연재한다면 홍시와 가족이 된 후의 우리 식구의 변화를 써볼 생각입니다.

인생 새 장 여는 3가지 풍경

- **관점바꿔 인생이면 읽어내기**
- **사랑으로 베푸는 일 행하기**
- **생 껴안고 충실히 살아가기**

풍경 셋

50-60대의 지인에게 반드시 보라고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주연한 영화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교사인 주인공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50대의 중년 여성입니다. 어느날 학문의 동지였고 친구 같았던 남편이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며 떠나고 혼자서 힘들게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도 여의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 올 수 있는 상실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지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보여주는 품격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파스칼의 팡세부터 알랭 드 보통의 행복론까지, 관조하고 성찰하는 인생철학을 논하는 장면이 공감을 주면서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이 몰입을 더하게 합니다.

그녀가 남편과 여름휴가마다 함께 지내던 시골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차를 타고 떠날 때 슈베르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이 물 흐르듯이 나옵니다. 프랑스 시골의 풍광과 함께 흐르는 슈베르트의 음률은 고적하고 쓸쓸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영화 속에 흐르는 영국의 성악가 이안 보스트리지의 음성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슈베르트 가곡을 탁월하게 해석한다는 평을 듣는 가수입니다.

독일의 18세기 시인인 슈톨베르크(Stolberg)의 노랫말을 음미하면서 들으면 한 방울 눈물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조금 길지만 그 느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다 인용합니다.

슈베르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 / 슈톨베르그 시

거울처럼 비추는 물결의 빛 가운데
백조처럼 흔들리며 미끄러지는 작은 배
아, 기쁨으로 은은히 빛나는 물결 위에
내 마음도 그 배처럼 미끄러져 가네
배를 에워싸고 물결 위에서 춤추네

서쪽 숲의 나무들 위에서
붉은 햇살이 정답게 손짓하니,
동쪽 숲에서 나무 가지들 아래
창포가 붉은 빛을 받고 살랑거리네.
내 영혼은 붉은 햇살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숲의 안식을 들이마시네

아, 시간은 이슬의 날개를 달고
흔들리는 물결 위로 사라져 가는구나
시간은 내일도 빛나는 날개로
어제와 오늘처럼 사라지겠지
마침내 나도 고귀하고 찬란한 날개 달고
변화하는 시간을 떠나서 사라지겠지

시간을 따라 우리 모두 사라지겠지만 고귀하고 찬란한 날개를 달고 사라진다니 의미없는 소멸만은 아닙니다. 중년에 혼자가 된, 영화 속 그녀의 삶도 손주라는 새로운 탄생이 있고 혼자라서 온전한 자유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죽음 앞에서도 존재감을 남기며 사라지지 않을까요?

불법을 따라 가고 싶은 길

올 한 해 동안 했던, 가장 알찬 일이 부디스트코칭 연재입니다. 덕분에 공부도 수행도 모자랐던 제가 불교 철학과 정신을 인내심 있게 공부하면서 코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단단하게 새워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들고 온 코칭 이슈를 불법을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묻고 답을 찾았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다보니 사전에 동의를 구했지만 개인사가 지나치게 밝혀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는 더욱 드라마틱한 사연이 많았지만 많이 빼고 부분 윤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가 제멋대로인 생각이 하나씩 줄을 서고 글이 글을 불러 조금씩 알알을 채워 한 편이 완성되는 그 과정은 힘든 가운데 상쾌한 카타르시스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읽는다는 독자의 메시지나 모자람을 넌지시 알려주는 지인의 충고도 힘이 되었습니다.

불자로서 코치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붓다의 지혜를 공부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정진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따르는 방편으로 앞으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위의 3가지 풍경으로 옮겨보았습니다.

- 관점을 바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면을 읽어낸다.
- 사랑을 시작하고 베푸는 일에 겁먹거나 인색하지 않는다.
- 내 앞의 생을 그대로 껴안고 충실하게 살아간다.

지난 1년 간 부디스트코칭이 읽는 분에게 소박하나마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끝〉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

- 마음으로 함께 승보공양 -

'기해년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법홍포에 정진하시는 대덕스님들과 재가불자 여러분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날을 봉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불자님들이 대덕스님들께 여법한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법석에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 1. 5(일) 오후2시 ~
■ 장 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5층)
■ 대 상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및 불자
■ 주 최 : (사)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승보공양준비위원회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중·대형 사찰들의 치명적 실수

고가의 바가지 음향시설에 복잡, 불필요한 엉터리 부속을 잔뜩 채움으로 1.사용불편 2.고장많음 3.저질소리 4.원인은 산사 스님들의 어두운 정보력을 이용한 업자들의 농간 때문!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최신 디지털시스템의 장점 : 1.기존시설과 현장소리 비교시 장난감 차이! 2.가격 1/3 , 3.원하는 소리만드는 기능 내재, 4.설법은 성우소리! 5.염불은 마이크와 2m에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 6.최신 간편 간단시스템으로 앰프다루기 1초!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시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부지런히 사는 게 부처님 유훈 실천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㉔ 영원한 진리 '12연기'(下)



그림 · 강병호

화두 들고 견성성불하는 것은
근본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다.
경전공부 · 염불 · 봉사 하는 것은
계정혜 터득 '취' 절제하는 것
취의 절제 '무명 타파' 지름길

육입이라는 것

육입(六入, salayatana)은 육근으로 하여금 육경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다.

육입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분명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는 아닌데 안 · 이 · 비 · 설 · 신 ·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육입에서 생기게 된다.

6근인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인식기관,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인식기관, 맛을 볼 수 있는 인식기관, 들을 수 있는 인식기관, 볼 수 있는 인식기관,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형성, 이런 것들이 다 명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육입단계이다.

육입이 만들어지면 촉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육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다. 육입 중에서 보는 기능이 없는 동물은 형상을 볼 수 없는 동물이 되며 또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동물은 들을 수 없는 동물이 되는 것이다.

육입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고등동물인 인간과 포유류이다. 또 동물들의 진화속도에 맞춰 어떤 동물들은 네 가지 혹은 세 가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육입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촉이라는 것

육입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위에 있는 것과 부딪침으로써 촉(觸, phassa)이 일어난다. 여섯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명색으로부터 진화되어 육입이 만들어지고 이 육입을 통해서 부딪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촉을 느낄 수 있다. 촉은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출발이 바로 촉이다. 그래서 6근과 6경과 6식이 부딪혀서 촉이 만들어진다.

기억이 깨어지는 단계가 바로 촉이다. 촉의 단계에 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깨뜨리고 앞에 선행했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한다. 6경과 6근과 6식이 항상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롭게 부딪침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기억이 깨어지는 단계가 촉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한 번 일어났던 것은 다 기억한다.

그러나 세포들도 점차 늙어가고 생각이 많이 축적됨으로 인해 이것이 일어났던 것인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살아 있다가 죽는 단계, 하나의 상태가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 촉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촉에서 기억들이 깨어지는 것은 살아 있다가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을 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생에 있었던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 바로 촉 때문이다.

참선을 하면서 생각을 가라앉혀 보라. 번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면 전생도 기억날 수 있고 전전생도 떠오를 수 있다. 깨어졌던 것을 다시 재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생이라 하는 것은 촉이 깨어져서 깨어지기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힘에 의해 얼마든지 내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생을 볼 수 있게 된다. 끝없이 나를 정화시킴으로써 깨어진 촉을 재구성하여 전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라는 것

촉이 있고 난 다음엔 항상 수(受, Vedana)가 일어난다. 느낌이 있고 나면 애욕이 생긴다. 촉과 수와 애에서 시간연기는 끝나버렸다. 그러나 12연기는 여기서도 계속 상황이 이어진다.

눈으로 TV 속의 김태희를 본다고 하자. 근이 경으로 나아가 즉 눈으로 김태희를 보는 순간 촉이 이루어지며 항상 느낌, 수가 일어나게 된다. 수가 구체화 되면 애욕으로 넘어가게 된다. 수에서 알아차림으로 느낌을 정제시키고 객관화 시키면 애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화가 되지 않은 객관적인 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예쁜 데, 마음에 드는 데 등 느낌이 생기면 이 느낌이 어떤 형태로의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만들어 저장되며 식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애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수의 단계에서 느낌을 알아차려 애로 넘어가는 회전을 멈추게 하여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때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림의 공부이다. 먼저 편안하게 합장한 자세로 눈을 지긋이 감고 오른발을 들어 놓고 다음 왼발을 들어 놓고 교대로 한다. 이때 생각을 들어나가는 발 끝에 모으며 발을 들고 나가고 놓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애라는 것

애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상에 대한 애욕, 감정에 대한 애욕으로 결국 취를 만들어낸다. 애욕은 자꾸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한다.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애욕에 의해 물질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감정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취하게 된다. 애욕이 생김으로써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애(愛, tanha)는 느낌과 감정의 결과로 생기는 갈애이며, 느낌에 의해 좋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갈애가 생긴다. 애는 욕애, 유애, 비유애가 있다.

욕애는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에 대한 욕망이며, 유애는 인간의 정의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욕망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다. 비유애는 그 밖에 일어나는 생명에 대한 욕망이다.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면 연기가 회전한다. 이것은 순간의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처나 아라한이 아닌 모든 생명은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 끝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느낌이다. 그런데 이 느낌을 그대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좋은 느낌을 원한다.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갈애이다.

그래서 깨달음(알아차림)이 느낌과 갈애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지 않으면 느낌과 갈애, 두 가지가 소멸되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면 집착을 하고 업을 생성하여 미래에 태어날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를 하는 것이다.

또 눈으로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과 함께 느낌이 일어났을 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지 살펴보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모르고 계속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갈애가 생긴 것이다.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좋아해서 집착하는 것이 된다. 무엇인가 좋아서 계속하는 것이다. 싫으면 어떤 것도 계속하지 않는다.

갈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이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 부딪쳤을 때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말한다. '안이비설신의' 가 '색성향미촉법' 에 부딪쳤을 때 느낌이 일어나고, 이 느낌을 좋아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이다.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내가 있다는 유신견을 가지고 더 예뻐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취라는 것

취(取)는 산스크리트어로 'upadana' 이다. 다나(dana)는 '주다' 의 뜻이며 '어(a)' 가 붙어 부정의 뜻이 된다. 주다에 어가 붙었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압(up)은 '가까이' 라는 뜻으로 취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애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몸이 부딪치고 가까이 있는데서 일어나서 '취' 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취'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취하지는 않는다. 애라는 것은 6근을 통해서 인식되어 애욕이 생기고 애욕에 따라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취가 생긴다.

유라는 것

취가 생기고 나니까 유(有, bhava)가 온다. 유는 욕망이 충족되는 행위이다. 결국 존재라 하는 것은 유로 표현된다. 가까이 있는 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하려는 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을 지속하려는 유가 생기게 된다. 살아있는 존재가 유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음으로써 새로운 행위를 하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가 된다.

유에는 생유 · 본유 · 사유 · 중유가 있다. 생유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며, 본유는 생에서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것이며, 사유는 삶에서 상태가 가장 급격하게 바뀌는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 중유는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삶의 형태이다.

불교의식에는 49재가 있다. 죽고 난 다음 중음신으로 있다가 염라대왕의 심판을 거쳐 다시 몸을 받는데 49일이 걸린다. 중음신으로 있는 기간이 49일이다.

유는 생명이 머무는 것이며, 행을 하며 다시 업을 짓게 된다. 명색을 갖고 있는 본유에서만 행을 하게 되고 행에 대한 업이 쌓이게 된다.

생이 라는 것

유의 업장으로 미래에 받게 될 과보가 생긴다. 즉 죽음 후에 오는 내세의 출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이 있게 된다. 생(生, jati)이라는 것은 각각의 중생 부류에 있어서, 각각의 중생이 생겨나는 것이며, 출생하는 것으로 출산, 탄생,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출현하는 것이며, 모든 기관이 완비되는 것이다.

노사, 老死(jara-marana)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이루어진다. 삶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뇌가 여기에 속한다.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늙음. 즉 변화의 끝이 사, 죽음이며,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서 12연기가 된다. 12연기를 인식하게 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를 알게 된다. 인과응보는 착한 행위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이다.

화두를 들고 견성성불한다는 것은 바로 근본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다. 경전공부를 하거나 염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계정혜를 터득함으로써 취를 절제하는 것이다. 취가 절제되면 애욕에서 자유로워지고 수, 촉으로 돌아가서 무명까지 타파하게 되는 것이다. 참선하는 것은 직행버스이고 염불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취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행버스와 같은 것이다. 정류장마다 서는 완행버스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해도 남는 것이 많다.

부처가 되는 길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인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끝〉

〈영남대 의대 교수〉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대상** : 누구나 관심있는 분

■**장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시간** : 지도자과정 –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문의** : 010-8634-7851 (정행스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특강**

교육내용	· 부모 자녀 관계 회복 · 부부 관계 회복 · 가족 관계 회복 상담치료
강의기간	12월 21일(토) ~ 2020년 1월 18일(토) (5주)
강의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8시간)
강 사	가족세우기 15년, 상담 30년 정행스님
접 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술관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우리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新 불교사자성어

㊻ 본래면목(本來面目)

'본래면목(本來面目)' 은 선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어(禪語)이다. 글자 그대로는 '본 모습', '본 얼굴' 정도지만, 그 심의(深意)는 '너는 누구냐?', '너의 본성' 또는 '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고 묻는 말과도 같다.

본래면목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모습', '전혀 꾸미지 않은 모습', '순진무구한 모습', 혹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모습' 등을 말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철학적으로는 '본래적 자기', '진정한 자기',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한글로 옮기는 데는 많은 고충이 따른다. 특히 본래면목과 같이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언어들의 경우 다양한 표현을 이중 삼중으로 동원해야 한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한자는 고작해야 네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말로는 3배에서 4배 이상 언어를 동원해야 한다. 이것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한글이 갖고 있는 언어의 특성 혹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화장과 성형기술이 뛰어나다.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세계적 수준인데, 예술적, 고혹적인 반면 '생얼', '민낯', '민얼굴' 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민낯', '생얼(生얼)' 이 바로 '본래 얼굴', '본래면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10년 전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화장실 길목에서 생얼을 보고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뻔했다.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보긴 봤는데' 하고는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평소 얼굴과 비슷하기는 해도 이미지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 화장의 효과가 그렇게 기막힌 줄은 처음 알았다. 그 뒤로 나는 나의 집사람에게도 부지런히 멋있게 화장을 하라고 권한다.

본래면목은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는 말인데 이는 곧 '부처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불교의 진리인가' 라고 묻는 정형구로서 '어떤 것이 깨달음의 세계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묻는 말과 같다. 의미상에서는 '본성', '자성(自性)', '불성', '법성' 등과 동의어이고, 본지풍광(本地風光)이나 자기본분(自己本分)과도 같은 말이다. 본성이란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淸淨心)을 가리킨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러한 청정심이 곧 불성이라고 한다.

'본래면목' 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화두가 있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으로,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父母未生前)의 모습', '나' 라는 형체가 만들어지기 이전 모습으로서 곧 '너의 본질' 을 가리킨다. 분별의식이 생기기 이전인 '근원', '본질' 등을 뜻한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이란 '분별 이전',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 을, 그리고 본래면목은 '진실한 나의 모습' 또는 '본래적 자기(我)' 를 뜻한다. 두 어휘가 결합된 말이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으로서 근원적인 자기에 대한 강한 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너)의 본모습은 무엇인가?', '나(너)의 실체는 무엇이냐?' 또는 '나(너)는 누구냐?' 고 묻는 말과도 같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것(自問)이다. 스스로 자문과 반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본래면목' 은 '너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이냐?', '너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또는 더 넓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我)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의 진리인가?', '무엇이 부처인가?'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끝〉

〈윤창화 민족사 대표〉

안목 있다면 언구서 달리지 말아야



격절록 강설

㊻ 제17칙 덕산작마(德山作麼) 2

[評唱 2]

至來日山出浴 其僧過茶與山 山撫僧背一下 這僧孟八郎 却道 "這老漢方始瞥地" 直饒浪擊千尋 爭奈龍王不顧. 雪竇是作家鉗鎚 大凡拈古 須平將秤稱斗量了然後批判. 他雖恁麼拈 不許人恁麼會. 雪竇拈道 "精金百煉 須要本分鉗鎚"

다음날,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는데 그 스님이 덕산에게 차를 건네주자 덕산이 스님의 등을 한 번 어루만졌다. 이 스님은 맹팔랑이라 도리어 말하기를 "이 노장이 이제야 막 눈치를 챘다"고 했는데, 설사 물결을 천 번을 치더라도 용왕이 돌아보지 않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설두에게는 작가의 집게와 쇠망치(作家鉗鎚, 작가의 솜씨)가 있었으니, 무릇 고칙에 염(拈古)을 할 때에는 모름지기 저울(秤)로 달아보고 말(斗)로 재보고 그런 다음 비판을 해야 한다. 그는 비록 이렇게 염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두가 염하기를 "쇠를 충분히 단련하려면 모름지기 본분의 집게와 쇠망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只如 德山前頭也休去 後頭也休去 未審作麼生是精金百煉. 德山真是惡手脚 見這僧不是受鉗鎚底人. 所以休去. 雪竇云 "德山既以己方人 這僧還同受屈" 德山如戴角大虫. 何故 却以己方人. 且道此意作麼生 若是具眼者 必不可言句上走.

그건 그렇고, 덕산이 앞에서도 쉬고 뒤에서도 쉬었는데, 어떤 것이 쇠를 충분히 단련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덕산에게는 정말로 험악한 수단이 있었지만, 이 스님이 집게와 쇠망치의 단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덕산이) 쉬었던(=그만 두었던) 것이다.

설두가 말하기를 "덕산은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평가했으니, 이 스님도 함께 굴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덕산은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자, 말해보라! 이 뜻이 무엇인가? 만약 안목을 갖춘 자라면 반드시 언구 상에서 달리지 말아야 한다.

雪竇以拄杖一畫云 "適來公案且置" 他為什麼却拈放一邊 却道 "從上諸聖向什麼處去也" 大眾擬議 一時打趁 到這裏合作麼生商量. 看 諸人皮下還有血麼.

설두가 주장자로 한 획을 그으며 말하기를 "좀 전에 공안은 놔두고"라고 했는데, 그는 어째서 도리어 염하는 것을 한쪽으로 내놓고, (또)다시 말하기를 "모든 옛 성인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고, 대중이 머뭇거리자 한꺼번에 쳐서 아버렸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따져야 맞겠는가?

보라! 여러분은 가죽아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끝〉

일 년 동안 〈격절록〉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100칙 모두를 소개하지 못한 불찰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100칙 모두를 소개하는 책자로 그간의 다하지 못함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그 어느 해보다 남녀 · 노소 · 남북 · 동서 · 빈부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감싸주고 등 두드려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설거사의 팔죽시(八竹詩)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대로 저런대로 되어가는 대로 /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나오는 대로 /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대로
손님 맞는 것은 집안 형편대로 / 시정의 사고파는 것은 세월대로
세상만사 내 맘 같지 않으니,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하며 세상 따라 세월을 보낸다."

(此竹彼竹化去竹 風打之竹浪打竹 粥粥飯飯生此竹 是是非非看彼竹
賓客接待家勢竹 市政買賣歲月竹 萬事不如吾心竹 然然然世過然竹)

덕우 강승욱 법사 합장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㊻ 이해의 길 26

대승에서 불상의 의미

요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라호르 박물관에 모셔진 붓다의 고행상 때문이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은 한국인의 심성을 닮아 포근하고 넉넉한 모습이지만, 당시 붓다는 살집은 별로 없고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고행상은 붓다의 모습을 사실에 가깝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포교에 전념했던 그의 고단한 삶이 느껴진다. 붓다의 고행상이 한국에서 전시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불상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리를 깨친 여래의 형상은 표현할 수 없다(如來像不表現)는 인도의 전통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래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인도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다. 그런데 여래는 진리를 깨치고 생사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처럼 존재의 세계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표현은 존재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붓다의 입멸 후 조성된 불탑에 그의 형상 대신 발이나 법륜(法輪), 보리수, 우산 등이 조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싯다르타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모습이나 출가를 위해 궁을 몰래 빠져나오는 장면은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여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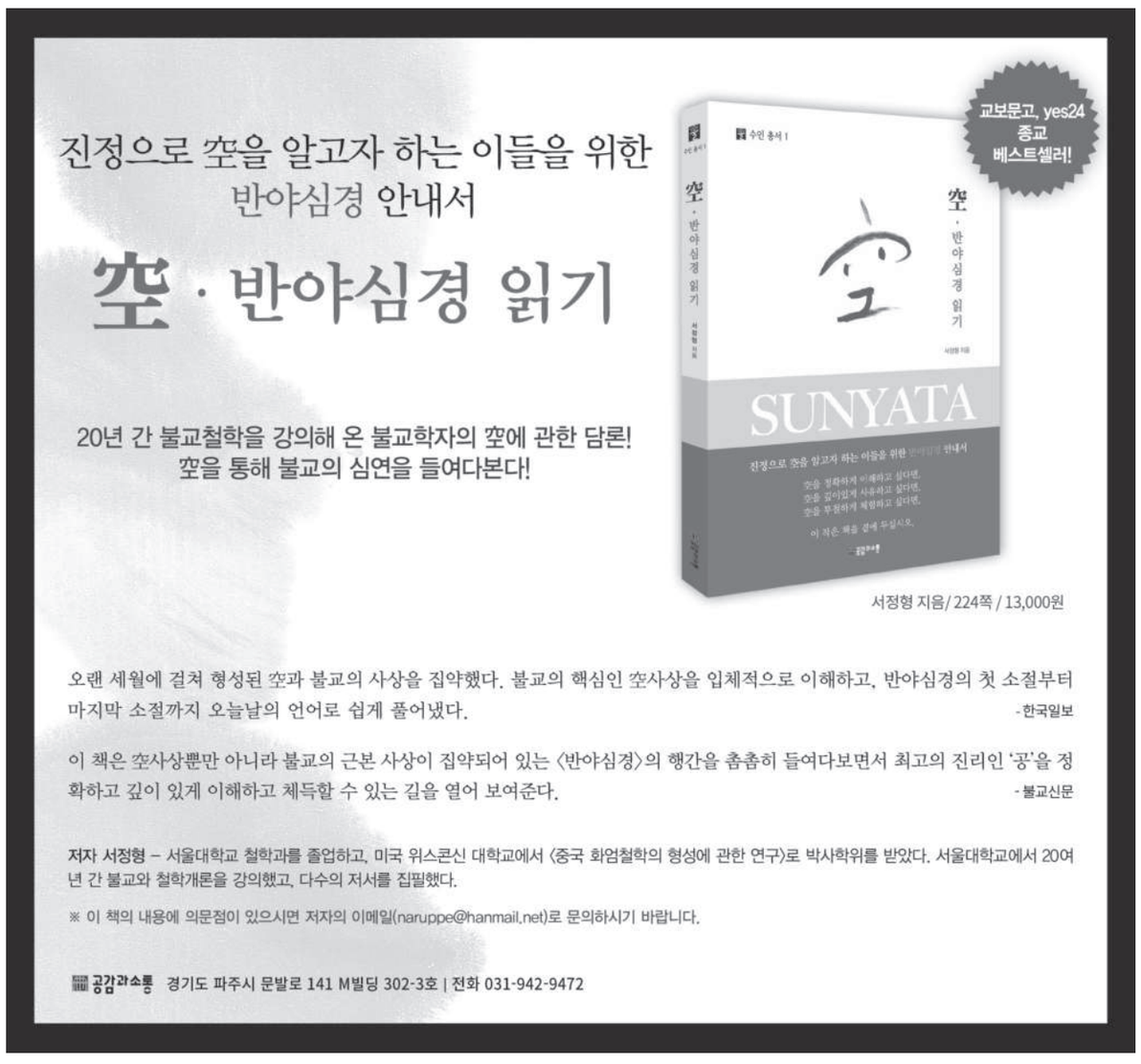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승불교에 이르러 불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부파불교는 법(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다. 부파불교를 '법(法)에 대한 연구' 라는 뜻을 지닌 '아비달마(Abhidharma)' 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각 부파마다 경(經)에 대한 논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 가운데 법이 중심이 되었다. 물론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각 부파는 법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들에게는 법이 아니라 붓다가 중심이 되는 강력한 상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상이었다.

불상은 지금의 파키스탄에 속한 간다라 지방과 중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마투라 지방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다. 대략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조성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불상의 양식은 매우 다르다. 간다라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상도 서구인, 특히 그리스인을 많이 닮았다.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을 떠올릴 정도로 서구적이라면, 마투라 불상은 전형적인 인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투라는 당시 인도의 정치와 군사,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파키스탄에서는 간다라가, 인도에서는 마투라가 최초의 불상 조성지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불상이 만들어질 당시 파키스탄은 인도에 속해 있었다.

마투라 지역에서 만든 불상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 여래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상이라고 새겨진 작품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래의 형상은 표현할 수 없다는 전통 때문에 여래상이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붙이지 못했던 것이다. 마투라는 그만큼 전통이 지배하는 지역이었다. 반면 간다라는 인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서구와의 교류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불상을 제작하였고 여래상이라는 이름도 쓸 수 있었다. 문화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승불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상은 신앙의 상징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곧 법 중심에서 붓다 중심의 불교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대중들은 오래 전 열반에 들었던 붓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느꼈을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불상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렇게 불상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문화재지정 대혜보각 선사서(서장)
경상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지정기념 무차천도대법회

2019 기해년 송년법회 및 무차천도대재

◈ 송년법회 ◈
2019년 12월 31일(화) 밤 9시

◈ 천 도 일 ◈
2020년 1월 1일(수) 10시 30분

* 동참하는 모든 분께(영가 접수시)
무보시 영가천도 봉행

낙동강 무심사
010-9898-0108



독거노인 돕기 음악회

불자님과 스님들의 음성포교를 통하여
소외계층을 돕는 음악회에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8시까지)
◆ 장소 : 송해보존회거리 국일관 앞
스타불자노래교실
◆ 문의 : 010-4233-3459
● 주지스님 신도, 간부(다과회) 가능

도움주실 계좌
농협 356-0180-4553-23 (예금주 : 김영대)

어려운 이웃 돕기(실천운동본부)
탄음 합장



연말 군산불교 발전 기원

군산사암연합회, 화합 한마당 잔치

기해년을 마무리하고 경자년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군산불교의 밤 행사가 열렸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는 12월 14일 군산 한원컨벤션센터에서 군산지역 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불교의 밤을 개최했다.

회장 도연스님은 대회사에서 "새해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 정진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내년에 군산불교가 활발하게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 불자들이 하나 되고, 전북불교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활발한 신행활동과 군산불교 발전에 공헌한 ㈜파슨텍 김선희 불자와 최수현 불자, 공군 호국 군성사 혜준 법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군산여고 원아영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탄 불씨로 전한 온정

부산불교, 동구에 연탄 1만장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하람라이온스클럽(회장 천유솜)은 12월 15일 부산 동구 범일5동 매축지마을 일대에 자비의 연탄 1만 장을 전달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제안으로 2017년 11월 시작된 이 행사는 부산시내 연탄사용 가구 680여곳 중 180여 가구가 밀집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범혜 스님은 "오늘 우리가 나눈 연탄이 훈훈한 불씨가 돼 동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번져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이 건설됐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자인 스님은 "작은 것을 하나씩 심고 실천해나갈 때 자비의 복밭이 자라난다. 마음과 뜻을 나누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천유솜 회장은 "연탄을 함께 나눈 여러분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참 불자다. 뜻 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현대인의 마음 확장 명상으로 이뤄내길"

Interview

불교출판 대상 수상한 강명희 법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백화도량 초심자 수행법 담은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많은 이들 수행에 관심 갖길"

"백화도량 도반들과 함께 낸 책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돼 기쁩니다. 현대인들이 명상수행을 시작으로 마음 확장을 이뤄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앤북스)이 선정됐다.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명희 백화도량 법사는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강명희 법사가 수행모임 백화도량에서 12가지 명상법을 강의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 공통으로 전하는 수행법인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연기관(緣起觀), 수식관(隨息觀), 계차별관(界差別觀) '5정심관'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명상법을 담고 있다.

1~3문 몸관찰 · 부정관 · 점관찰로 몸을 안팎에서 관찰하고, 4~6문 느낌관찰 · 음악명상 · 촛불명상으로 느낌과 감정을 관찰한다. 이후 만트라명상과 마음관찰로 마음에 직접 들어가 마음의 핵심을 바라본 뒤 걷기명상과 자연명상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법을 익힌다. 끝으로 수식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자비관으로 수행에서 얻은 것을 회향한다.

강명희 법사는 "12문 수행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념처를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수행법이 함께 연결되도록 재구성했다"며 "이런 수행프로그램은 매월 한 번씩 백화도량에서 초심자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도량은 1992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천수경 읽기 백만인 운동' 중심도량으로 개원했다. 수행과 자비실천 공동체로서 서울 수유동에 거점을 두고, 최근 강원도 오대산자락에 명상수련원을 열었다. 1999년 심준보 법사에 이어 2001년부터 강명희 법사가 백화도량을 이끌며 정기적인 수련법회와 수행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인 강명희 법사는 초기불교, 아비달마, 대승유식 등 불교수행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20년 이상 수행했다.

강명희 법사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익히는 12가지 명상법은 명상에 입문하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약간의 명상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12가지 명상법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몸, 느낌, 마음, 개념 순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을 받았지만 자발적인 수행단체 백화도량을 인위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강명희 법사는 "많은 사람들을 수행으로 이끌고, 마음을 확장시켜 대승불교의 실천적인 면을 인식하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얀마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조계종복지재단, 홍수피해지역 대피소 · 다리 · 도로 등 건설

미얀마에서 6년째 재난위험 경감사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현지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미얀마에서 지속적인 홍수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목적대피소와 다리, 도로를 준공하며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또한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12월 1일부터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지역 정부대표 및 현지 협력단체, 마을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황을 살피고,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공유했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미얀마 에와야디관구 몰레미얀준면 지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우기에 물이 범람하면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복지재단은 미얀마 몰레미얀준 타운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아레예줘 빌리지 트랙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해왔다.



뽀도무마을 다목적 대피소 준공식.

복지재단은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지역 중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재난대응 취약 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재난발생 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필요한 설비를 건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재단은 다른 마을로부터 접근성이 높은 뽀도무 마을에 화장실과 물탱크를 갖춘 50평 규모의 다목적 대피소를 세웠다. 대피소는 평소 초등학교로 사용하며, 재난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활동되도록 라디오와 담요, 구급약품 등을 구비했다. 아울러 비예쭤 마을에 철근콘크리트 다리를 신축해 물이 범람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따삐예준 마을 흙길은 420m 길이의 도로로 재탄생했다.

12월 3~5일 각 마을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뗀나인퉤 지역행정부 대표와 디위표 재난관리위원회 부대표, 마을주민들이 참석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재단이 미얀마에서 추진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통해 재난과 맞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으리라 기대한다"며 "새로운 대피소와 도로, 다리가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뽀도무마을 대표 민미 씨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교육 받은 내용대로 적극 대처해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을에서 조성한 위원회를 통해 대피소 관리와 활용을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혜암당 성관 스님 추모재

해인사, 18주기 맞아 원당암 미소굴 참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2월 13일 대적광전에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스님의 1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산중원로와 주지 현응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재는 원당암 미소굴 참배와 비림 부도탑 육법공양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자비도량참법기도 2차 회향

창원 구룡사, 천일기도 200일 맞아 회향법회



창원 구룡사(주지 무성)는 12월 13일 설법전에서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200일 2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주지 무성 스님은 "2차 회향을 맞아 천일기도가 생활 속에 지속되고, 자비심과 참회의 마음이 채워지길 바란다"며 "모든 중생의 잘못도 함께 나눠주는 것이 바로 공덕"이라고 법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건 10주년 관음보살 개금

안산 동명정사, 12월 15일 점안법요식



안산 동명정사(주지 승운)는 12월 15일 경내에서 창건 10주년을 맞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요식을 봉행했다. 동명정사 주지 승운 스님은 "종교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동명정사 대중이 일체유심조를 새겨 함께 수행하고 정진한 공덕으로 관세음보살 개금을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2020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4년(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 목
불기2564년(2020년)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4호 | A13 | 전면광고

세상의 모든 향기 중에 가장 훌륭한 향기가
세 가지 있으니, 첫째가 지계의 향기요,
둘째가 배움의 향기요, 셋째가 보시의 향기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 •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 • •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아는소리 공개강좌

(3개월 단기교육 완성)

"스님의 말씀이 곧 법문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3개월 교육비 : 5백만원**
-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 영점이나 점성술이 아니고 정확한 명리학 통계 데이터(공식)입니다.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공단상가 4층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 석지성 합장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 •
부산 도심 사찰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분
도심포교 할수 있는 분
모십니다
• • •
010-3885-8989

• • •
부천 만불선원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8707-3490

정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5계를 철저히 지키는(채식, 금주, 금연) 조계종 소속의 독신 포교사로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불교수련원, 불교요양원 건립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 (대여) 선우를 찾습니다.
(무상보시는 원치않습니다.)
해월산 在禪 합장
010-7572-53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전문 상담사 양성 무료교육

◎ **대상 : 종교인, 장애인, 극빈자** ◎
◈ **출장전문 무료교육내용** ◈
철학, 한의학, 심리학, 점술, 신경성질환, 성문제, 부부문제 **암, 우울증 극복, 성격분석**
◒ **본원 : 서울, 경기양주, 심리철학관** ◒
正翰 李東起 010-4078-7810

구하면

얻어지는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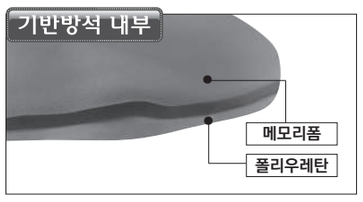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1274호 | A14 | 전면광고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 놓고,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축원을 한들, 어찌 무거운 돌이 물 위에 떠 오를 수 있으랴.



부처님 말씀 읽기 -《중아함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강남건물 안내

- 가액 : 41억
- 위치 : 서울 서초구 논현역 1분, 신사역 5분
- 대지 : 78평 • 연면적 : 165평
- 규모 : 지상1층 ~ 5층 2009년식, 승강기

010-5334-9814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m²
- 건축물면적 : 135.49m²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지리산 청학동)
- 부동산 양도
  1. 한옥: 건평 155평, 대지 1,180평 / 15억 5천만원.
  2. 유스호스텔: 건평 230평, 대지 600평 / 9억원
  3. 전답: 700평 / 평당 35만원
-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e3101

010-3835-713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쏙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북구 재래시장 근처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 60평 냉온난방, 보안, 주차시설
- 포교원을 운영하실 스님 연락 주세요!
- 월세30만/관리비10만

010-4535-256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경관 수려하고 아늑한 모든것이 완벽한 사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 대지 1천평, 임야 1천평, 법당 35평,산신각, 종각 육송소재,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 지하창고12평,화장실,욕실,차고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대출4~5억 가능)

011-9324-4461

사찰 안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급)다용도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 대지173평, 임야(밭)39평
- 건축 : 1층식당 7평(32평6홉) 방5개, 거실1, 실내화장실3개, 실외2개, 2층다용도(삼존불)외 논17평5홉
- 상수도, 용천수, 산천수(풍족)
- 가액 : 2억9천만원(절충가능)
- 농협은행 1억7천만원 담보대출

010-9612-1022

토굴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3층건물중 3층(약70평)
- 삼존불, 원불280불, 산신각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 협의후 결정

010-2125-468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쏙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3천5백만(조정가능)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전세5천만원/월세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도로변 상가건물 2층
- 132m²(40평) 법당, 접견실, 방1, 주방, 화장실

010-2535-9910

토굴 터 전세

- 산자수려하고 한눈에 계룡산 전망을 볼 수 있는 명당 자리 전세놓습니다.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1길 56
- 가액 : 전세 1억(절충가능) (바로 입주 가능)

암자 안내

- 위치 : 태화산 경내 암자(효심원)
- 평수 : 약 2천평 • 가액 : 전세 1억5천만원
- 좋은 조건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010-4233-3459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투자가치 35억 상당(신도시개발로 땅값상승함) • 가액:13억 (대출금5억포함) • 계약시 3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잔금 5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30%진행중
- 대형버스 진입 공사 2차선 연결중

010-9647-0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쏙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도심 속 사찰명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정동, 대지 : 216평
- 건물(판넬주택) 50평, 방2, 화장실, 거실, 주방(주택구조), 조경, 주차시설완비
- 가액 : 9억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사찰·터(암자,포교당)상담전문

살분 ⇄ 팔분

- 사전문 중개한 경력이 많음
- 전국 보유하고있는 정보 많음
- 비밀보장,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성의로 상담합니다.

(불자업소)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4층건물 2층, 3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식당, 화장실2개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500만
- 스님 건강때문에 급매

010-3884-0122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부근
- 평수 : 절터 900여평, 법당1, 요차채2, 종각, 종중땅, 전450평, 답 2400평, 국유지대지 250평, 승계 • 타인에게 농사 맡겨서 쌀80kg 20가마 수입
- 가액 3천 9백만원

010-7182-76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라진 '유급휴가' 천도합니다

일본서 이색천도재… 노동자 고통 위로하려

박영빈 객원기자

직장인들이 끝내 쓰지 못하고 사라진 유급휴가를 위한 천도재. 바쁜 현대인의 고달픔을 위로하는 이색 천도재가 일본 도쿄에서 봉행돼 화제다. 12월 13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와 'IT 미디어 비즈니스'는 이 독특한 소식을 특집 보도했다.

유급휴가 천도재는 일본의 '근로자 감사의 날'인 11월 23일과 그 전일인 22일 양일에 걸쳐 봉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중지, 지난 12월 10일 오사카 시내에서 다시 봉행됐다. 천도재를 주최한 웹 콘텐츠 제작회사 '닌겐(人間)'은 "유급휴가를 영혼에 비유해 소리 없이 스러진 유급휴가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봉행 취지를 밝혔다.

주최 측은 천도재 봉행에 앞서 웹사이트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을 공모했다. 모집된 수많은 후기들 중 300여건의 후기를 엄선, 사연을 종이에 써 등불로 밝혔다. 또 등을 밝히는 영가의 이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써졌다.

후기 중엔 "가족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와 같은 사연은 물론 "유급휴가의 9할을 쓰지 못한 채 정년퇴임했다"는 사연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주최 측은 "받지 못한 유급휴가는 어딘가로 떠나거나 집에서 편안히 쉬는 등의 '모습'이 존재한다.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사라진 유급휴가의 존귀함을 등불이라는 모습으로 가시화했다"며 300여개의 등불을 밝힌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우천으로 중지됐던 천도재를 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봉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사연을 확실히 위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모든 천도재를 정성껏 지내겠다고 밝혔다.

웹 콘텐츠 제작회사 '닌겐'
정토종 스님 집전으로 봉행
유급휴가 받지 못한 사연에
정당한 권리 알리고자 기획

천도재는 정토종 사이넨지(西念寺)의 사야마 세키로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300여 개의 등불이 줄지어 켜진 가운데 사야마 스님의 독경이 울려 퍼지고, 각 영가들의 이름인 사연의 제목들이 스크린에 흘러갔다.



사라진 유급휴가들을 천도하는 천도재의 모습. 사진출처=IT 미디어 비즈니스

사야마 스님은 천도재를 지내면서 "나 역시 출가 전 회사원 시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채 월 200시간 이상 잔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천도재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를 '수라계'라고 한다. 이러한 노동과 삶속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수라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며 천도재를 통해 수라의 삶을 사는 이들이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 측은 '유급휴가를 받아낸 사연'도 함께 모아 이를 기반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운세 제비뽑기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유급휴가를 어떻게든 받아내고 말겠다" "정당한 권리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 웃기면서도 서글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천도재를 기획한 닌겐 담당자는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아무래도 직설적으로 전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희화화하는 게 더 쉽게 전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봄부터 사측이 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찰로 재탄생한 네덜란드 성당

태국 담마까야재단, 성당 매입 후 반응 긍정적

폐쇄된 성당이 사찰로 탈바꿈해 화제다. 12월 12일, 인터넷 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네덜란드의 한 성당이 불교 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아페르덴 마을에 있는 가톨릭 성당은 2017년 태국스님들에 의해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했다. 네덜란드에서 가톨릭이 쇠퇴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성당들이 폐쇄 및 매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원으로 전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현재 사원은 지역의 불교와 타 종교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며 새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 했다.

성당의 폐쇄과정을 감독한 지역 교구위원회 수석부회장 톤 펄로(Ton Perlo) 신부는 "가톨릭 교구는 일반적으로 타 종교가 성당을 매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성당이 영적인 건물로 남기를 바란 교구의 고심 끝에 불교 측의 매입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성당이 사찰로 변한 계기를 밝혔다. 성당을 매입한 태국의 불교단체는 1916년 태국에서 시작된 '담마까야(Dammakaya) 재단'으로, 네덜란드의 담마까야재단은 2014년 불교 교육의 실천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사찰에 상주하며 불교를 가르치는 샌더 오데남센(Sander Oudenampsen) 스님은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법당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이 명상에 이상적인 고요함을 갖추고 있어 바로 매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톨릭과 불교는 기도와 명상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 성당에 미사를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명상을 위해 방문하곤 한다"고 웃어 보였다.


네덜란드 성당을 매입해 운영 중인 담마까야 사원. 사진출처=담마까야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이 성당에서 사목했던 제라드 반 후프(Gerard van Hoofd) 신부는 "불교신자들이 성당에 터를 잡게 돼 기쁘다. 불교도들은 이 마을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 주민도 "종종 성당에서 드렸던 미사가 그립긴 하지만, 친절한 불교도들은 이미 마을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면서 "성당이 '마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법이민자 색출에 불교도 '불똥'

인도정부 '인도시민 국가등록'
망명 티베트인 등 곤란 겪어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애꿎은 불교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12월 14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인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색출제도'로 불교성지 보드가야에 거주하는 불교도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정부는 지난달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게 위해 전국적으로 '인도시민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of India; NRC)'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NRC는 적법한 방법으로 인도의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가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제도다.인도 동북부 아삼주(州)에서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해당 제도는 소수 집단을 겨냥한 '인종청소'라고 비판받았다. 아삼 주에서 등록을 거부당한 이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민권을 획득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린다는 게 그 이유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드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불공을 올리는 각국의 스님들. 사진출처=아웃룩인디아

한편 제도의 시행으로 애꿎은 불교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인도 불교의 고대유적들이 산재한 비하르주에는 주 인구의 0.02%인 약 2만5000여 명의 불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보드가야에는 세계 40여국의 사찰이 있으며 각각 수백 명의 출가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3~4대 이상을 거주한 수천 명의 불교도들도 다수 있다.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출신의 한 스님은 현 제도에서 조상의 혈통에 관한 문서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을 꼬집어 "망명 티베트인들이 인도에 거주했던 조상과 혈통에 관한 문서를 요청받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스님은 "티베트 난민은 이미 난민의 삶을 살고 있으며, 망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는데 또 다시 NRC 등록제도로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하르주 관광개발공사의 무케시 쿠마르(Mukesh Kumar)는 "지난해 보드가야를 방문한 1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특히 불교신자의 비율이 높고, 그 중 대다수가 관광 비자를 갱신해 가며 10년 이상 보드가야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보드가야의 한 티베트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텐진 스님은 망명 티베트인들과 많은 불교도들의 지위가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미래를 낙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중세 석불이 전하는 신앙 역사

日 고야산, 수십만 기의 석불 · 석탑 조명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일본불교의 성지 고야산(高野山)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보들이 많다. 12월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고야산에 산재한 수십만 기의 석불과 석탑에 대해 보도했다.

고야산은 816년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진언밀교의 근본도량으로 개산했다. 고야산은 현재도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으로 본사인 콘고부지(金剛峰寺)와 117개소의 산내 사찰이 산재한 성지다. 고야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역은 코보대사의 육신을 모신 오쿠노인(奥之院)으로, 주변에는 일본 역사에 중요한 인물의 무덤이나 중세에 조성된 석불과 석탑이 곳곳에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일석오륜탑(一石五輪塔)이라 불리는 석탑들로, 돌 하나로 오륜탑을 조각한 것이다. 오륜탑은 밀교에서 5대(지 · 수 · 화 · 풍 · 공)를 상징하는 5가지 도형을 모아 만든 탑으로 대일여래(비로자나불)을 모시는 탑이다.

산케이 신문은 "중세에 고야산에 대한 신성화와 신앙이 강조되면서 민간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며 "중세에 망자, 혹은 자신의 묘표로써 오륜탑을 고야산에 세우는 것이 유행했다"고 수십만 기의 석불과 석탑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와카야마현 지역민속고고학 연구소는 이들 석불과 석탑에 대해 "14세기 이후로 일석오륜탑이 유행했다. 보통 기단부를 땅에 묻어 세웠으며, 기년이나 인명 등이 새겨져 있는 경우 귀중한 사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또 "석불의 경우 밀교계 불상, 혹은 사후세계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옅게 새기거나 선으로만 새긴 경우도 있어 시대별로 다양한 작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들이 민간에서의 불교신행에 중요한 상징이었음을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죽음 직시하면 괴로움 줄어든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㉔ 죽음 앞 '지금-여기' 응시

〈죽음 앞에서 '지금-여기' 응시하기〉는 당신의 생애 끝에서 '지금 이 순간'을 조망해보는 글쓰기다. 탄생이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끝지점. 한 시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를 당신의 생애 끝 의식으로 '지금-여기'의 삶을 굽어보자는 제안이다.

당신에게 죽음은 무엇일까. 모든 생명에게 죽음은 생애 가장 크고 특별한 사건이다.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았음은 물론 타인의 경험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의 죽음은 상황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당신이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이다. 삶의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는 지칭 또한 무의미해진다. 죽음의 순간, 당신은 죽음의 주체인 듯하면서 주체가 아니고 객체인 듯하면서 객체도 아니다. 죽음의 순간 당신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다.

죽음은 살아생전에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괴로움의 대상이다. 삶이 삶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아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죽음은 당신이라는 생명의 '중단'을 입증해 줄 '아는 마음' 조차 소실된 상태이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정작 그 순간에는 스스로 알 수 없다. 스스로 알 수 없음은 경험의 생략이고, 경험 없음은 '있지 않은' 일이다. 당신의 죽음은 뒤집힌 접시물과 같아서 이승에 남아서 당신의 주검을 씻고 닦는 자의 몫이다.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살아있는 당신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일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 두려우니까 외면하고, 외면하다보니 두려워지는 걸까.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아직 애착 대상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 못다 한 사랑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거나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 누리고 싶은 세상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은 생명 전체를 끊어낸 그 무엇이다. 생애 마지막 호흡에 이른 순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충분히 예고됐었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친지의 죽음은 곧 나의 한 부분이 죽은 것이다. 내 차례에 대한 예행연습이며 현재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만한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잘 사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본생경〉



붓다는, 죽음은 두려움이나 외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죽음은 육체의 소멸일 뿐 마음의 사멸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불교에서 죽음은 '재생연결식'으로 가는 다음 생의 시작 지점이다. 그것은 밤에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는 과정을 닮았다.

실제적 측면에서 죽음은 타인의 죽음을 통한 간접 경험일 뿐이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만 놓인 존재이다.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눈치 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어렴풋이 눈치 챈 '끝없는 과정'은 당신 의식 깊은 곳, 어두운 심해(深海)의 식이다. 물론 누구나 깊고 지극한 수행을 통해 심해의식을 만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은 대체로 표피적이다. 당신의 표면의식은 몇 미리미터(mm) 두께도 안 되는 피부가 육신을 감싸고 있듯 당신이라는 존재 전반을 가까스로 감싸고 있다. 바람과 햇빛 따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처럼 당신의 표면 의식은 판단과 분별거리 앞에서 수선스럽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판단과 분별심에 포착되는 세상은 당신의 다양한 신경다발에 연결되어 온갖 심인성 질환을 만들어내곤 한다.

당신은 판단과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 웅숭그리고 앉아 질병이나 돌발 사고를 앞세우고 밀려오는 죽음의 기미 앞에서 오그라든다. 당신의 표면의식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앞에서 종잡을 수 없이 휘둘리곤 한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배면에 어슬렁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내지도 못하고 씻어내지도 못하는 체념의 다른 형식이 두려움이나 외면이다.

당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늘 현재형이라는 사실. 처음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스스로 휘감고 온 존재라는 사실. 죽음의 그림자는 수시로 그것의 존재성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사실. 죽음의 그림자는 한 호흡 지간, 한 걸음, 건널목 건너는 순간, 밥 한 숟가락 삼키는 순간, 저녁 잠에 드는 그 순간에도 긴 흔적을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

탄생한 모든 것에 적용되는 죽음
경험할 수 없기에 괴로움이 된다
육체의 소멸일 뿐 그 이상 없어
미리 죽음을 생각해 글을 써보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직시한다면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죽음 앞에서 '지금-여기' 응시하기〉는 그 해답을 구하는 글쓰기다.

-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낭독할 '추도사' 쓰기.
- 자신의 묘비명을 10자, 20자, 50자로 정리해본다.
- 자신의 장기 기증서, 지갑용 유서, 묘지설계도 등을 작성한다.
- 죽음의 순간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고 싶은 말 글쓰기.
- 내 죽음의 순간, 주변의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적기.
- 죽음을 한 시간 앞두었을 때, 내가 취할 태도 적어보기.

죽음은 당신이 평생 엮어온 인연과 재산과 자연과 시간을 한 순간에 공(空)으로 돌린다. 죽음을 주제로 글 쓰는 일은 허공을 배경으로 글 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피, 밝은 눈, 단단한 근육, 민감한 혀, 촉촉한 입술. 생명의 활력 속에서 죽음을 상정하는 일은 가당찮아 보인다. 귀에 들리는 소리, 혀를 적시는 침의 느낌, 피부의 여러 감각들을 일시에 떨궈내는 일은 상상조차도 간단치 않다. 살아온 나날 속에서 타인의 추도사를 들었거나 읽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어떤가.

"여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먼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당신이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에 바치는 여러 방식의 글쓰기 영감은 어렵지 않게 떠오를 것이다. 잠시 몸과 마음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자신의 생과 사를 기록하는 묘비명, 장기기증서, 묘지 설계도를 적어가는 동안 당신의 '지금-여기'가 홀연하고 선명하게 일어설 것이다.

연재를 마치며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은 세상에 알려진 여러 명상법에 대한 이의제기다. 명상이 이렇게 추상적이어서야 원! 명상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명상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아서야 원! 툴툴 대면서 찾아 나선 결과다. 전통적인 좌선이나 행선, 염불선, 사경 등의 방식으로는 명상 세상이 더 환하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조바심의 결실이다.

배운 게 '문자'이고 못 배운 게 '좌선'이나 '경행'인 극초보 수행자를 위한 수행 접근은 없을까. 혹시 '글쓰기를 통해서 본격 수행으로 가는 계단'을 밟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지고지순한 진리의 말씀보다 본인에게 익숙하고, 쉽고, 간편하고, 평범하고, 재밌고, 가벼운 것에게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일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모바일 폰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하기를 더 좋아할까.

삼삼오오 모인 자리를 눈여겨보면 답이 보인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우고 들어보라. 그들의 표정이 보이고 몸짓이 보이고 마음이 보인다. 물고기가 동료의 꼬리치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꼬리를 흔들며 물결을 거슬러가기 위해 떼 지어 모인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토해낼 때 가장 힘차다.

그들은 말하는 존재, 드러내는 존재, 침묵 깨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그들은 침묵하는 존재, 은인자중하는 존재, 우주의 거대 질서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전철에서 시끄럽게 통화하고, 3~4일씩 야근하면서 인생의 폭폭함을 체득하고, 침묵이 버거운 사람들이다. 나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오래 머물렀다. 쉽고 가볍고 통상적인 이웃의 손을 잡고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떨어진 몫이 아닐까. '문자'라는 보편적 도구로 '말하고, 드러내고, 질서와 무질서를 넘나드는' 이들과 함께 수선떨며 가는 것이 내 몫 아닐까, 생각했다.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은 타인과의 소통 열풍을 자신과의 소통으로 전환하는 심리공사(心理工事)이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지면에 열성을 녹여 넣었다. 그동안에도 대한민국은 손바닥만한 소통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글쓰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생각만으로도 등판이 따뜻해질 만큼 놀랍고 유쾌한 일이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바람이 생겼다. 타인과의 소통 언어 대부분이 자신의 내면 드러내기임을 당사자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그 차이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은 35개의 주제를 다뤘다. 이 주제는 세상의 많은 관심거리 중 1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그나마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거드는 데 도움 될 만한 주제를 골랐다. 이 35가지 주제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을 잘 드러나게 하는 데 초점 맞춰 설명을 달았다. 누구나 썰매 타듯이 글로써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얹혔다.

〈글쓰기명상〉의 대원칙 하나는 '자신이 쓴 글을 아무하고도 나눠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나누는 게 좋지만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을까. 글을 타인과 나누지 않을 확실한 방법은 즉시 파기나 소멸시키는 것이다. 굳이 나누지 않는 이유는 뭘까? 솔직해지기 위해서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자신한테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나눔이 전제된다면 그 버릇이 도질 것 같다.

두 번째는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을 통한 반성의 근육 기르기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스스로 확인할 겨를 없이 사라지곤 한다. 심지어, 방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 내가 손으로 제작한 문자는 여기에 오래 머문다. 재확인이 가능해서 되돌아볼 수 있다. 나는 이 놀랍고 신비한 문명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이 기분을 나누고 싶었다. 당신의 성찰 게임. 〈글쓰기명상〉이 그것을 즐기는 데 도움 되기를 기원한다. 〈글쓰기명상〉을 명상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확장되기를 기원한다. 〈끝〉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2019년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9년 7월 10일까지** : 2019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1월 10일까지** : 2019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20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 공익법인출연자산보고, 세무조사대행,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찰관련 세무신고대행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서 "박성욱 세무사"를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 과세관련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대행 스님

하늘이 무너져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 중세계, 하세계가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지금 대천세계(大千世界)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다가, 우리 중세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 버리고 그냥 대천세계(大千世界)로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이 공기 주머니에서 아마 벗어나서 평화스러울 겁니다. 모두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달라져야죠. 새삼스럽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생각으로써, 한생각으로써 조그마한 일을 실천으로 옮겨 보세요. 조그마한 내 가정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실천을 해 보다 보면 우주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들이 전부 펼쳐질 때, 이 허공에 그 빛보다 더 빨리 펼쳐지면서 돌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연중에 배합이 돼서 불국토가 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이렇게 화(化)해서 나툰다 하는 것을 저희들 물리학에서 본다면, 모든 물질들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자들이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그냥 고정된 궤도를 돌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궤도가 궤도를 옮겼다 고정되지 않고 바꾸면, 큰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광력이라든가 전력, 통신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어 놓은 업식이라든가 또는 그 무명이라든가 아까 번뇌 망상에 의해서 그런 궤도를 제대로 운행을 못 하도록 한다면, 또 뭐, 의학적으로 본다면 피가 몸속 곳곳에 운행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한 곳에 막히게 되면 거기가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번뇌 망상 또는 업식이 있을 때에 돌아가는 운행을 못 하게 한다든가 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진한다든가 참선한다든가, 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히고 제대로 운행을 못 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돌게 만드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힘도 그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힘이 모여져야 큰 힘이 나오지, 그 힘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여러 군데로 같이 이렇게 방해를 하면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수행이나 정진은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이 나오도록 돌리는 것이 정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큰스님께서 자동 컴퓨터를 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분하고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이얼을 돌린다든가 또는 그 방송을 들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그 방송을 듣게 되는데, 주인공 그 자리라 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주파수가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지금 현상적으로 본다면 KBS 방송을 들으려면 KBS 채널을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주인공 그 자리는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관(觀)하면 전체 자동으로 맞춰지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네. 자동이에요. 이 지금 로보트를 운행을 한다든가, 또는 방송을 듣는다든가 통신을 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작용하게끔 돌린다든가 이런다면 뭔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복잡한 것을 다 착착착착 그냥 그냥 일사천리로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자동적인 컴퓨터가. 여러분의 머리이 컴퓨터가 말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주관적인 데서 모든 배출시키는 거와 모든 통신하는 거 모든 일체…. 뭐, 이 지금 물질 컴퓨터에다가는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하는 것만 나오죠? 그러나 여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일체 광대무변한 모두가 전부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에 벌써 그냥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눌러지는 걸 모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생각이나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하하하, 아, 자꾸 이러니까 이거는 하려다 못 하고 하려다 못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명령으로 조달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게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그 자기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진행하는 컴퓨터를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는 얘깁니다. 네? 세상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누굴 믿느냔 얘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허공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형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지은 것도,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냥 노래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처님 법도 둘이 아니라. 이러니 그냥 생활이 그대로 법이요, 생활이 그냥 부처님 생활이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자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자로 배출이 됐다가 또 그 입자가 배출이 돼 가지곤 또 수 바퀴를 돌아서 다시 화(化)해서 크게 또 우주를 형성시키고, 그 우주를 형성시키고 원자가 되고, 또 그냥 그렇게 배출이 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끌어 들여서 또 크게 배출을 시켜서, 또 나누어서 배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보면요. 우주의 섭리나 인간의 두뇌의 섭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생각했다면 악의 종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선을 한다면 선의 종자가 그냥 무수히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물질로 구제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발의 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를 한다 하고들 모두 날뛰는데, 한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악이 퍼져 가지고 전부 웬만한 조그만 거는 다 그냥 뭉개져 버려요. 그냥 못 살게 뭉갠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어떠한 것을 도와야 하느냐면, 마음을 도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신계에 진출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건 막대합니다, 정말. 그 반반이에요. 그런데 악이 더 많지 선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종자가 그냥 천차만별로 종자 종류가 그냥그냥 퍼지는 거죠.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는 늘 그 주인공 큰 자리를 불기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은 그런 마음들이, 전체 에너지가 모여서 되는 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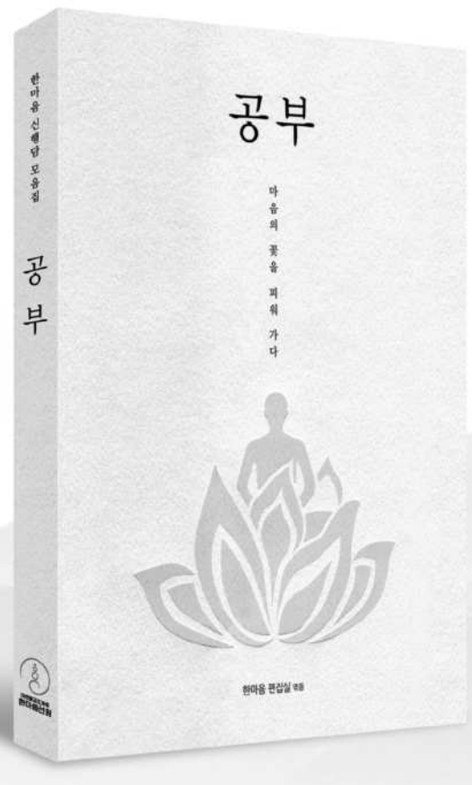
큰스님 전체, 그러니까 찰나찰나 이렇게 전체 모이죠. 이렇게 찰나에 전체 하나로 되기도 하고, 이건 보이지 않는 데 이치입니다마는 보이는 데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한데 합쳐졌다 또 분리가 돼서 전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전부 합쳐지고…. 왜, 이런 게 있죠. 전부 시장이나 장관이나 모두 이렇게 일을 보는데 귀정적인 문제는 대통령에게로 전달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하달을 하듯이. 이거는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다 댈 게 아니죠.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무슨 이거를 조달을 하느라고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로 착착착착 나오듯이 그냥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느 동네, 또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떤 사람이 행하고 온 거, 과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행했고,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구, 당신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와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고 살겠고'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거를 이 마음으로써, 자기 한생각으로써 바꿀 수 있으니깐 그거를 자신이 실천을 해 봐라 이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차원에 따라, 그릇에 따라서 움죽거릴 수 있는 거니까 조그만 거라도, 큰 거라도 서슴지 말고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지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모두가 이 마음 근본에 달려있으니 이 마음공부가 아주 필요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여기 앉아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받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귀중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받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손가락 이것도, 즉 말하자면 손가락이라는 건 가리키는 방편이지, 진짜 하늘을 받칠 수 있는 손가락 하나는, 그거는 말로 형상이 되고 말로 이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몸에 신이 들린 사람이나 신기(神氣)가 있는 사람들이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상당히 평화롭지 못하고 분란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을수록 그런 영향이 무척 많더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 암자 같은 데 전국 곳곳의 계룡산이라든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신들린 사람들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그런 것이 다 업보 때문인지요.

큰스님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모셔 놓고 전자에 선대에서 모셔 놓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 영령(英靈)이 딴 데로 뜨질 못하고 그냥 자손들한테 연결이 되거나 이런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가다 오다 차 사고가 나도 그렇고, 어디에서 죽어도, 물에서 죽어도 그렇고 그 영령이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보이지 않는 저 그림자 같은 영령이니까 그냥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 것 같지만, 비행기가 그냥 공중에 떴으니까 아무 데로 가도 되는 것 같지만 길이 있듯이, 우리가 한 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또 딴 사람을 하나 넣고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셋째는, 내 몸뚱이 속에 그 의식들, 생명, 모습들이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차근차근 '나는 아무개다, 나는 아무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속아서 그냥 영이 들린 줄 알고 그냥 바깥으로 그렇게 헤매는 거지. 그러면 그 의식들이 다 그냥, 즉 말하자면 미친 영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글대니까 이 체가 말이야, 이것이 살 때는, 이 의식이 동요할 때는 그 의식의 동요를 받아서 그냥 움죽거리고, 이것이 그럴 때는 이것에 움죽거리고 저것이 그럴 때는 저것이 움죽거리고, 막 부수고 그냥 그러는 이 의식이 나오면 그대로 막 부수고, 이렇게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깐 미쳤다고 그러지, 주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깐 그것을 고치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첫째 과거의 그 조상들이 천도가 돼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이 영계의 물방울이 세 방울이 있다면 여기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천도를 한번 해 드리면 되겠지. 세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한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컵으로 물이 돼야 이게 괜찮아지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부인이 어린 애 둘을 낳고 죽었는데 부인을 얻어오기만 하면 이건 사고가 나, 그냥. 문제가 생겨. 도저히 부인을 얻어서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것도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을 천도를 시키기보다는 지금 새로 들어온 부인과 한데 합쳐 주면은 얼마나 잘 살겠소? 하하하. 아,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아량과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 밑에서 자손들은 잘될 거고, 지혜가 없는 부모 밑에서는 잘되지 못한다 이런 소리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하! 이 마음이 근본에 달려 있으니까 이 공부가 아주 필요한데, 그 영계가 들린 사람들이나 안에서 업보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나 보면요, 본인이 그렇게 관하게끔 해 놓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 가지도 마라." 이러니깐, 그리고 "방에서 나가지 마라." 이러고 하기도 하고 "먹지 마라." 이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자꾸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그 막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니까 도저히 힘들죠, 그거. 그래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도저히 그거를 볼 수가 없고 식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깐 병원에 갖다 놓고 침착하게 관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죠.

>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하라.**
> **자기 그릇의 분수를 모르고서 강을 건너다가**
> **중간에 빠져 죽는다.**

살다가 애지중지하게 자식 기르면서 그저 좀 살 만하니깐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냥 같이 살아라.' 허허허. 이렇게 그냥 해 주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잘되고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깐 이것도, 즉 말하자면 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해 나갈 때 그 불쌍한 것도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부자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 사람의 마음의 질이 어떤가 이거를 살펴서 다 참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댁이 애원하고 있는 그 사실도, 어떤 때는 내가 그랬듯이 어떤 사람은 그 모셔 놨던 영계들이 그냥 악하고 모자라서 자비를 베풀 마음의 여지가 없거든. 그러니깐 그냥 물질로써 때로는, 그게 살아생전에 물질만 알고 살던 영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오려서 막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많은 걸로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치가 있고, 고다음에 이제 영계들이 오며 가면서 친구도 죽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원인이. 바깥으로 믿고 찾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굴리길 좋아하고, 그냥 머리가 좋아 가지고 '요거 아, 요거 위에는 뭐지?' 하고 이렇게 그냥 찾고 돌아가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리는 거지. 바깥에서 '아, 요거는 요 집 주인이 없구나.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 하는 거죠.

임제(臨濟)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중심을 잡지 않고, 이 주인공을 자기가 믿지 않고 주장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찾고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온갖 보이지 않는 데 영계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는 데 세균 그런 문제들이 다 이 빈집이니깐 막 들어와서 살게끔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깥으로 찾지 말라고 내가 항시 그렇게 타이르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모셔 놓고 하던 거는 다 지금 없애고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건 정말,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있어서, 즉 말하자면 업보죠. 그걸로써 나오는 거죠, 차례차례로. 차례차례로 나오는 거를 되입력을 하면 그것도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마음 근본에 달려 있으니까 이 공부가 아주 필요한데, 그 영계가 들린 사람들이나 안에서 업보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나 보면요, 본인이 그렇게 관하게끔 해 놓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 가지도 마라." 이러니깐, 그리고 "방에서 나가지 마라." 이러고 하기도 하고 "먹지 마라." 이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자꾸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그 막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니까 도저히 힘들죠, 그거. 그래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도저히 그거를 볼 수가 없고 식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깐 병원에 갖다 놓고 침착하게 관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죠.

질문자2(남) 그런데 그 사람 부모가 신이 들리면 밑에 있는 자손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데, 그게 자손들도 똑같이 그러면, 모든 업보들이 털끝만치 빈틈이 없다는데 그러면 자손들이 그런 부모로 인해 받는 그 업보도, 신적인 업보도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인지요? 그 자손들이 지은 업보 때문인지요?

큰스님 그렇지. 이게 염주가 이렇게 있으면 한 염주줄에 염주알이 다 꿰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의 조상들한테…, 이렇게 지금 현재에 보여 줄 테니까 들어 봐. 깡통은 깡통끼리 모이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깡통끼리 모였고 금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넝마끼리 모이고, 이게 인간도 정치인들끼리 모이고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모이고 이러듯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듯이 한 식구가 그렇게 같은 차원에서 모였거든. 같은 차원에서 모였으니까 같은 그 업을 지금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알고, 그대로 그냥 속지 말고 그냥 한군데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에다 다 맡기고, 그냥 믿고 다 그냥 거기다 해결하면, 본인도 그렇게 하면 그냥 뭐, 하루도 걸리지 않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해. 그걸 몰라, 그냥. 말을 열 마디 백 마디 해 줘도 그게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 글쎄? 그러니 내가 네 대신 똥을 눠 줄 수 있고 먹어 줄 수 있고 죽어 줄 수 있다면 내가 해 줄 수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단 얘기야.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지어서 만약에 5년 징역이라든가 10년 징역을 해 놨는데, 제삼자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거를 무죄로 할 수 있어?

질문자2(남) 그 밑에서 자식들이 받는 그것도 우리가 모두 자식들이 그만큼 지었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

큰스님 똑같이 지은 거지.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짓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거든, 그게. 그러니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지. 부모가 자식 탓 할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 탓 할 수도 없어!

자신들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 여기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다섯 식구라 하면 한 식구가 여기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 하는 거보다 배를, 자기가 더 그냥 적극 그냥 들어가야지. 모두를 한데 합해서 그냥 다 집어넣고 들어가야지. 그러든지 식구가 전부 똑같이 열심히 해서 하면 어쩌면 그냥 무산이 돼 버릴 수가 있지.

질문자3(남) 언젠가 큰스님께서 이 세상 만물은 그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사멸하거나 퇴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잠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는 현재 퇴보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발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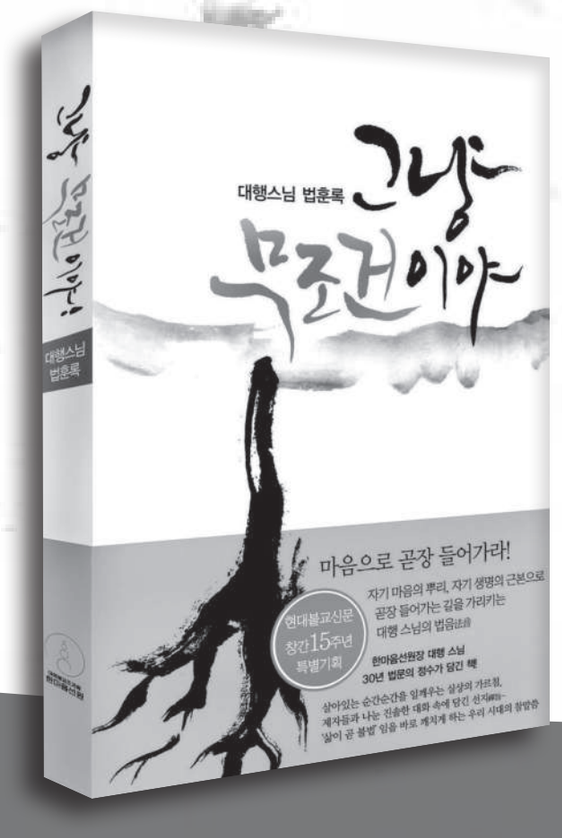
큰스님 하하하. 결국은 마음이지 뭘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불교든지 세계적으로 종교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그 전부터 외국으로 다니면서 잘 검토했는데요, 이 나무라면 전부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 하고 바깥으로 전부 찾고요, 부처님 찾는 것도 바깥으로 찾고요, 그러고 있어요. 뭐, 그 모든 것을 일체 배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무시하고 가니 그 뭐,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겠어요? 그리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왜 발전이 없겠느냐 하면 물질적으로는 발전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정신적으로 발전이 있어야만이 이 한계가 없이 무한계로다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거니와, 세계를 다 혼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와 더불어 이 행성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전부 이게 작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 세상에서 나쁜 악한 일이 생기고 죽이는 일이 생기고 또 뭐, 부모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또 돈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모두 옆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벌레라고 할까 짐승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모두 하게끔 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자기를, 자기 분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릇이 요만하냐 이만하냐 그거를 알아야 어떠한 거를 그 그릇에 담더라도 자기 분수에 맞게, 그릇에 맞게 담는데, 자기 분수를 못 보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큰 거를 갖다가 듬뿍 집어넣으면 그거 한데로 다 새니까 그건 사기를 당하고 또 돈을 떼이게 되고 모두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그렇게 해라. 자기 그릇의 분수도 모르고서 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빠져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가게를 하거나 빚을 내서 공장을 하고 빚을 내서 그냥 하는데 그 빚이 한 달에 얼마씩 늘어 가며, 먹고 살려면 차라리 빚을 내지 말고 몸뚱이로다가 부대껴서 뭐든지 해서 가늘게 먹고 그냥 살지 아이, 그냥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는 집도 절도 없애고는 이제는 못 살게 되는 이치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무엇을 바꾸고 지킬 것인가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열반경〉 부처님 마지막 말씀인
"모두 변하니 끊임없이 정진하라"
'깨어있는 삶 살라' 경책 다가와

변화않는 '타임캡슐 인생'도 있어
정해진 기준에 머물며 안주하거나
얄팍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규정

모두 독불장군적 독선에 가득 차
무엇 지키고 바꿀지 생각해보길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기를

불자들과 경전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면 어느 경전인들 가슴에 사무치지 않겠는가만은 특히 〈열반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곤 한다. 경전에서 전해지는 당신의 한 동작 동작들이 눈에 선하고,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리는 듯 또렷하다. 온전히 부처님이 실재하시는 법석에 함께하는 듯 가슴 벅찬 감사함에 흠뻑 젖어들곤 한다. 경전공부를 하면서 얻는 큰 기쁨의 하나가 그 법석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열반경〉의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신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한다. 게으름 없이 열심히 정진하여 수행을 완성하라"는 가르침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따끔한 경책으로 오랫동안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말씀이다.

깨어있는 삶이란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생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신께서 사시던 시대에도 가장 혁신적인 사상과 종교였고 그 대중들의 수행과 삶의 방식 또한 그러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이 지난 현대사회에서도 그 혁신적인 면모는 조금도 빛바래지 않고 있다. 인류역사상 최상의 깨달음과 최고의 가르침의 자리는 불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자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불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오래 묵은 진부한 종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역사를 떠나 언제나 그 혁신성을 잃지 않고 있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불교 의례의식과 오랜 세월 이어온 불교의 역사와 문화는 다소 낡고 새롭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살아 숨 쉬는 삶은 역동적이며 변화와 환경에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이 불교적인 것이며 깨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타임캡슐(time capsule,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담아서 후세에 온전히 전할 목적으로 고안한 용기. 대개 땅속에 묻어 둔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을 딱 정해서 기준으로 삼고 그 시점에 머물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먹어 본 음식만 먹어요"라는 사람이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그 기준이 아닐까 싶다. 평생 그렇게 그런 틀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자신의 얄팍한 경험에 세상 모든 일들을 구겨 넣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타임캡슐 인생의 대표적인 부류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쌓아온 경험이나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불장군적인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으로 〈열반경〉에는 쇠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밧지 족이 이미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로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은 깨뜨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옛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 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원칙과 기준이 되는 계율과 행동지침은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의 소소한 일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원칙에 적응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익을수록 더욱 제대로 보아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기자칼럼

자비행, 행복의 지름길

노덕현 취재부 차장

최근 '인천 장발장'이란 용어가 SNS와 포털사이트 등의 인기검색어에 떠올랐다.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배고픔에 못 이겨 우유, 사과 등 1만원 가량의 식료품을 훔친 기초생활수급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 얘기다.

'장발장 부자'의 마트 절도 사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훈훈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해피엔드로 마무리 됐다.

당뇨 때문에 일을 못해 굶주린 아버지가 우유와 과일을 훔치다 잡혔고, 사정을 들은 마트는 이를 용서해줬다. 사정을 들은 경찰은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대접했다.

당시 경찰이 언론인터뷰에서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왈칵 눈물을 쏟는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게다가 옆에서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돈 봉투를 말도 없이 전해주고가 화제가 됐다.

장발장 부자의 스토리가 감동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세밑 추위가 거세기 때문이다. 밥 굶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직 많다. '어디 있냐'고 한탄하는 경찰의 말은 '사람이 밥은 굶지 않아야 하지 않냐'는 애절한 외침의 다른 말이다.

연말 취재를 위해 나선 창신동 쪽방촌과 영등포 쪽방촌, 그리고 광화문 노숙인 쉼터 등에서는 예전과 달리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 많았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보다 얼어붙은 듯하다. 물질적인 후원 감소보단 직접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바로 사람의 감정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2019년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은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한 감정의 사람과 접촉했을 때 전염 확률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장발장 부자를 대한 마트 주인의 자비심이 경찰에게, 그리고 경찰의 언론인터뷰가 또 다른 후원자에게 전염되듯이 말이다.

즉 자비심도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 사회의 따뜻한 정이 조금은 줄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저 세상 탓으로 돌리기엔 무엇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이른바 '자비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언론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 한해 불교계 기사를 되돌아 보면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이중 불자들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것은 불교 교세 확대나 제도 개편 등이 아닌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불편한 이웃을 보살피는 미담이 아니었을까.

매달 100만원씩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봉투에 담아 기부한 익명의 보살 이야기,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해 매달 부모님 심부름을 하며 저금통에 용돈을 모아 전한 아이들의 이야기 등 미처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찰 주변에는 장발장 부자와 같은 이들이 많다. 예로부터 말이다. 불자의 한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 속의 정을 행하는 그런 날이 내일이 되길 기원하며 새해에 임하자.

社 說

태고종, 정상화 첫 발에 박수를

지난 1년간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중심으로 촉발된 종단 내홍이 새해를 앞두고 극적으로 수습됐다.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당선된 지 반년 만에 총무원 청사에 정식으로 진입하고, 제15대 중앙종회가 구성돼 정기회의를 개원한 날 이뤄진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

태고종은 2015년 폭력이 발생한 분규사태 이후 현재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폭력에 연루된 스님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고, 2017년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중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8년부터 태고종 안팎에서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중앙종회와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전국종무원장협의회까지 나서 집행부의 삼보정재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등을 돌린 채 올해 신년사에서 종단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중앙종회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종단 내홍은 가속화됐다.

결국 불신임 이후 새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도 관계가 악화된 편백운 스님은 뒤늦게 방하착을 택했다.

이제 태고종은 5년간의 내홍을 뒤로하고 일신에 나설 때다. 5번째로 밀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순서가 현재 태고종의 위상을 대변한다. 올해 새로 출범한 제27대 총무원 집행부와 제15대 중앙종회가 최전선에 나서 종단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 봄을 맞이한 태고종의 정상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진 해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이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단순히 수행과 보시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사부대중의 손으로 직접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불사 추진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에서 대대적인 모연운동이 전개됐으며, 37년 도반인 설매 · 연취 보살이 부다가야 사찰 건립기금 50억 원을 희사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하반기 이슈 중 하나는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도림 · 인산 스님은 상월선원이라고 명명된 비닐하우스 선원에서 11월 11일부터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한달여 지난 현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 대중들의 야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했다.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상월선원을 찾는 등 한달 동안 5만여 불자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외호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외적 인프라 확대를 위한 외형적 불사라면 상월선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례천막결사'는 한국불교 수행 · 신행문화 증진을 위한 내부적 불사이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성패에는 불자 대중의 보시 동참이, '위례천막결사' 역시 외호대중의 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2019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불사와 결사가 시작됐다. 2020년에는 화합된 사부대중의 힘으로 두 불사와 결사가 완성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쉼터를 가다’

⑨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쉼에서 지혜를 찾다
사색 위한 열린 공간
오대산 숲속으로…



풍요로운 오대산과 여유로운 남한강 오대천에 별빛, 달빛이 녹아내리고 소나무와 흰 구름은 바람의 빛깔이 되어 흩어진다. 고요하게, 그리고 차분히 홀로 앉아 있으면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짐을 느낀다.

바쁜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은 항상 잠시나마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것이 아닌 사색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오대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이 일대에는 국내 최고 힐링공간으로 평가 받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daesan Meditation Village, 옴뷔)이 있다. 2018년 개원한 이래로 1년이 흐른 지금, 옴뷔는 불교를 넘어 세상을 향해 열린 명상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은 예로부터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자장율사부터 한암, 탄허 스님 등 선지식을 비롯한 고승들과 명필을 배출 한 것도 이 이유일 것이다.

오대산 맑은 기운 전하는 곳

이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옴뷔다. 옴뷔(OMV)는 오대산(Odaesan), 명상(Meditation), 마을(Village)의 줄임말이다. ‘숲에서 쉬다’, ‘자연을 먹다’, ‘느리게 놀다’ 라는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우리나라 명상, 힐링 플랫폼을 주창하며 세워졌다.

다른 명상마을과 명상원과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옴뷔는 명상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겪어본 다른 명상마을의 경우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롯한 불교수행과 현대화된 명상 한가지만을 주된 수행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제반 시설이 맞춰 세워져 있었다. 수용 가능한 수행인원 또한 차이가 있다. 일반의 명상원은 1:1지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B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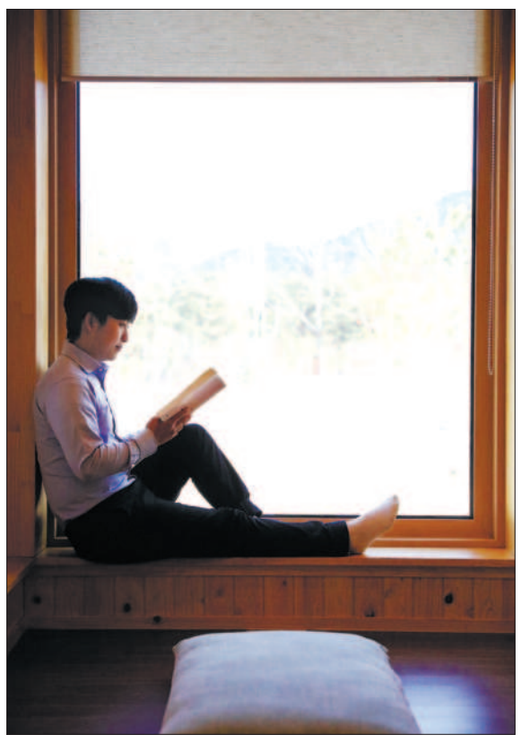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순례기를 마무리하며

B4 책세상
정찬주의 〈법정 스님 인생응원가〉

B5 문화
안동대博 ‘벽돌에 담긴 천년의 숨결’

B6 학술
2019 학술 · 문화재 결산



개인실에는 작은 명상공간이 마련돼 있다. 좌선 · 독서 등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의 전경. 오대산 국립공원 초입에 오대천을 낀 입지로 저절로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개인숙소 시설만 80곳으로 개인별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메인명상홀에서 진행되는 다도교육. 명상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교육이 진행된다.

자연 힐링 · 자율 수행… 자유 속 마음 쉼 저절로

명상 열린 플랫폼 지향

간화선 · 위빠사나 등 자율

전문 상담도 함께 진행해

외부 명상 단체 참여 활발

1년간 1만여 명 다녀가

인문학 · 불교학 접합 터전

웰컴센터는 북카페 활용

채식조리, 건강강좌 개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구성

쉬며 사색 갖기 알맞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B1면에서 계속

반면 옴뷔의 경우 여러 가지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플랫폼 역할과 개별 지도가 함께 병행되는 구조로 많은 명상팀이 동시에 각자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옴뷔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명상 수행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옴뷔는 수행 뿐만 아니라 단순한 쉼의 공간으로도 가꿔져 있는 곳이다. 명상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명상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약한 지금, 옴뷔는 그야말로 ‘불교명상’이라는 전선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최전선으로도 느껴졌다.

각 프로그램 마다 충분한 휴식 제공

옴뷔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진행되는 아침명상을 시작으로 명상 프로그램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저녁 7시면 치유요가를 비롯해 치유 프로그램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말에는 명상법회도 진행된다. 토요일 4시부터는 경청명상과 일요일 오전에는 걷기명상 및 스님들과 함께하는 명상법회도 열린다. 명상법회 때는 월정사 스님들이 지도법사로 함께 참여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없다. 휴식을 통해 개인이 숙소에서 독서를 하거나 가족 단위로 잠시 쉬었다 가도 되는 것이 바로 옴뷔다.

취재를 위해 옴뷔의 한 숙소를 찾았을 때 문을 열고 반긴 것은 한 직장인이었다. 잠시 머리를 쉬고 독서를 하기 위해 옴뷔에 왔다는 그의 말에서 옴뷔가 가진 마음쉼터로서의 면목을 살필 수 있었다.

개인 · 자율수행이 장점, 플랫폼 기능

사실 이러한 옴뷔가 탄생하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 2014년 첫 착공 이후 5년간의 기간을 거쳐 준비했다. 99,174㎡에 9,917㎡의 건평으로 100실 규모의 거대한 명상마을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 그리고 명상열기가 일기를 바라는 이들의 열정이 녹아 있다.

그런 열정의 공간을 과감하게 일반인들의 휴식공간으로 내놓은 월정사의 결정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불사 비용을 감내하며 이런 마음쉼터를 플랫폼 형식으로 내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옴뷔 교육국장 선공 스님은 “사실 불교계 내에서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한 명상법이 알려져 있는 상태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오곤 한다. 이들을 위해 혼자 잠시 떠나서,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그냥 몸만 와도 되도록 하는 곳이 옴뷔”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각종 명상과 요가 수업의 경우에도 이른바 초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심화과정보다는 기초과정을 통해 점점 명상수행의 장점을 느끼고 이들이 생활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 하에 옴뷔는 개인수행에 맞춰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대규모 인원이 함께 수행하는 동림선원이 메인수행홀로 있지만 모든 숙소마다 작은 명상실을 배정했다. 이런 개인 수행이 되는 숙소가 총 80곳에 달한다. 숙소 내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일반인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에 앞선 직장인의 사례처럼 휴식을 위해 찾는 이들도 많다.

이런 장점 속에서 개원한지 1년 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불교명상단체를 비롯해 수행자들이 이 곳을 주 수행공간, 혹은 대형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는 연간 1만여 명의 내방객, 한달 평균 800여 명의 예약인원으로도 드러난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만난 관계자들도 옴뷔의 플랫폼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서은정 한국명상심리연구원 팀장은 11월 말 서광 스님을 지도법사로 하는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옴뷔에서 진행했다. 이 명상 프로그램에는 8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서 팀장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일단 외부에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목적의 명상홀과 함께 개인수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문학 요람으로도 발전

옴뷔는 불교명상 보급의 최전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문학 보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명상을 통한 힐링 뿐만 아니라 독서와 차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먼저 ‘비움채’로 이름 붙여진 ‘웰컴센터’에는 북카페가 있다. 또 태백산맥, 아리랑 등의 저서로 한국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조정래 작가가 명예촌장으로 인문학 지혜를 나누는 ‘조정래 문학관’도 위치한다.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웰컴 센터에 들어서면 하나의 카페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쪽에 꽂힌 〈명상, 지혜를 논하다〉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순간〉 등을 입소와 함께 빌려 읽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맞은편에는 오대산사 박물관마을이 함께 조성돼 있으며 왕조실록의궤박물관, 성보박물관, 한강 시원지체험관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견학도 할 수 있다.

주말마다 재능나눔 특강도 다채롭게 열린다. ‘뇌세포 재활 및 치매 예방’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생활수행’ 등 명상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강연이 이어진다. 문화재 타임랩스, 착한음식 쿠킹클라스, 전통다도체험 등 불교문화재, 사찰음식과 관련된 인문강좌도 이어진다.

새해에는 삶에 잠시 쉼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 무엇보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삶의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식사 장소인 ‘수피다’는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와 건강한 삶을 기도하며 만들어진 채식단을 제공하는 웰빙식당이다. 오대천을 바라보며 조용히 힐링을 할 수 있는 ‘성적당(惺寂堂)’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 짐을 느낄 수 있다.

옴뷔 원장 인광 스님은 “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알아차림도 마음의 쉼에서 일어나기에 쉼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옴뷔에서 자연과 인문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쉼’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해 동안 마음쉼터를 진행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었던 찰나 옴뷔에서의 경험은 마음의 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다가오는 새해, 어떤 수행이나 명상이란 굴레 조차 벗어던지고 조용히 사색을 통해 마음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며 옴뷔를 나섰다. 〈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늘도 힘내서 걷겠습니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㉟ 순례기를 마무리하며



시코쿠 순례자들의 마지막 회향처인 고야산 전경. 고야산은 일본 밀교를 상징하는 성지이기도 하다.

1,250km 험준한 시코쿠 순례길
몸 · 마음 지치고 악연을 만나기도
따뜻한 정성의 오셋타이에 ‘눈물’
유대 · 배려 넘치는 ‘살아있는 길’

일상이 어려워질 때 생각한다
“나는 시코쿠의 오헨로상이다!”



88번 오쿠보지로 가는 마지막 고갯길. 시코쿠 순례는 살아있는 길이다.



88번 사찰에 남겨진 순례자들의 지팡이. 순례자들의 유대가 느껴진다.

이틀간 마츠야마에 묵으며 그간의 여독을 풀고, 관광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색하지만 근처의 유명한 장소나 먹거리도 즐겼다. 한 달여 가까이 걸었던 습관이 몸에 배여 새벽같이 눈이 떠지고, 가까운 거리는 다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곤 숙소주인이 “아예 고야산까지도 걸어가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제 다시금 흰옷을 입고 순례자로 돌아갈 시간이다.

도고온천 본관의 옥상에는 매일 아침 6시 온천의 개장을 알리는 북이 있다. 순례길이 이어지는 온천 앞 삼거리에서 짧게 울리는 북소리를 듣고선 걸음을 시작한다. 상점가는 대부분 닫혀있거나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다. 발걸음도 가볍게 여기저기 숨은 빨간 화살표를 보며 순례길을 나아간다. 아침의 부산함이 보이는 주택가를 조금 빗겨나자 내 발걸음과 지팡이 소리만이 자박자박 울리는 고요한 길이 이어진다. 조용한 아침 길을 걸으며 시코쿠 순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시코쿠 순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순례길에 오른다.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와 순례길을 찾은 이, 관광 삼아 순례하는 이,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는 이, 우연한 기회에 순례를 시작한 이. 저마다 다양한 동기로 순례길에 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순례자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불가에 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전단나무로 중생의 모습을 만들고, 여래와 보살의 모습도 만든다. 비록 만개의 얼굴과 천개의 머리가 각기 달라도, 만약 향기를 맡아보면 하나의 향기이다.”

흰 옷을 몸에 걸치고 손에는 투박한 지팡이를, 머리에는 삿갓을 쓴 모습에서 순례자들은 신기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 어떤 사연도, 마음도, 성별도, 나이와 국적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같은 순례를 하고 있는 동료라는 생각은 상대에 대한 경계를 풀게 한다. 초면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다.

12번 쇼산지 아래에서 만난 한 중년의 순례자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다 발각됐다”며 초면의 나에게 순례의 계기를 풀어 놓은 적 있었다. 그와 같이 횡령했던 동기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살한 것에 충격을 받아, 몇 달 간 술만 마시고 사는 것을 보다 못한 장인이 시코쿠로 보냈단다.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눈에서 슬픔과 불안이 보였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고야산까지 도착했다고 온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굳은 결의가 보였다.

22번 뵤도지에서 만난 부부는 이번에 태어난 손자의 호신불이라며 작은 문수보살상을 품에 안고 순례하고 있었다. 두 손에 작은 문수보살상을 정중히 올리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연히 51번 이시테지에서 다시 마주쳤는데, 문수보살을 손자가 모시자 안좋은 일들이 다 풀렸다며 감사의 의미로 순례한다고 웃어보였다.

76번 도류지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차량으로 편하게 순례하는 죄책감’이 있다며, 순례를 마치고 고야산을 참배할 때 같이 참배하자고 권했었다. 심지어 뒤의 8-번의 코쿠분지 본당 앞에 종이 박스를 잘라 쓴 편지에 연락처까지 남겨선 다시금 같이 고야산 참배를 권했다. 결국 그 인연으로 고야산을 함께 올랐던 기억도 있다.

이렇게 필자가 만난 많은 순례자들의 이야기와 사연만 풀어도 몇날며칠이 걸릴 것이다. 그냥 다른 순례 중의 단순한 추억으로 끝날 수 있으련만, 모두 같은 순례자라는 유대감 하나만으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또 순례자의 행색은 순례자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시코쿠의 사람들과도 만남의 열쇠가 된다. 단지 순례자라는 이유로 다가오는 깊은 온정은 그동안 잊고 있던 감사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한다.

순례길에서 만난 한 초로의 순례자는 “순례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상대편에서 먼저 미소로 인사를 해온다”며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껴서, 마음이 울적해 지면 다시금 시코쿠로 순례를 온다고 말했다.

필자도 지쳐서 길가에 앉아 있을 때 걱정과 격려의 목소리를 수없이 받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자고 가라는 한 할아버지의 권유에 응해 하룻밤 신세를 진적도 있다. 그 할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순례자 한 분을 집에 모신다”며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전화를 거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더욱이 첫 번째 순례에서 마지막 88번을 사찰을 향하던 기억은 나의 모든 시코쿠 순례를 통틀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추억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발걸음이 무거운 데 그간에 받았던 오셋타이가 하나하나 생각났다. 그 무거운 은혜와 감사함이 한순간 물밀 듯 몰려오자 결국 눈물 뚝뚝 흘리며 걸어갔다. 오셋타이에 대한 감사함이 기억나자 이번엔 부모님이, 이 길을 만든 코보대사가, 또 불법승 삼보의 은혜가 하나하나 떠오르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며 88번 오쿠보지를 향했다.

보통 순례자의 흰옷은 원래 일본에서는 수의, 즉 사자(死者)의 복장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농담으로 ‘시코쿠(四國)순례가 아니라 시코쿠(死國) 순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순례자들에게 이 길은 ‘살아있는 길’이다. 순례자간의 유대와 사람들 간의 온정이 끈끈하게 다가오는 가슴 따듯한 길이다. 그동안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수행의 길이다.

물론, 최장 1,250km의 시코쿠 순례길은 언제나 편한 것은 아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계속되는 일정에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 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갯길을 넘어 멀리 탁 트인 풍경을 볼 때, 저 멀리 사찰의 산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희심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또 이런 강렬한 기억들이 다시금 나를 순례자로서 시코쿠에 서게 한다.

생각이 깊어 가는데 어디선가 나는 향 내음이 주변을 둘러보게 한다. 길가의 작은 지장보살상에 누군가 아침 일찍 공양을 올렸는지 향 연기가 가물 대고 있다. 나도 잠깐 걸음을 멈추고 향을 하나 뽑아 사른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걷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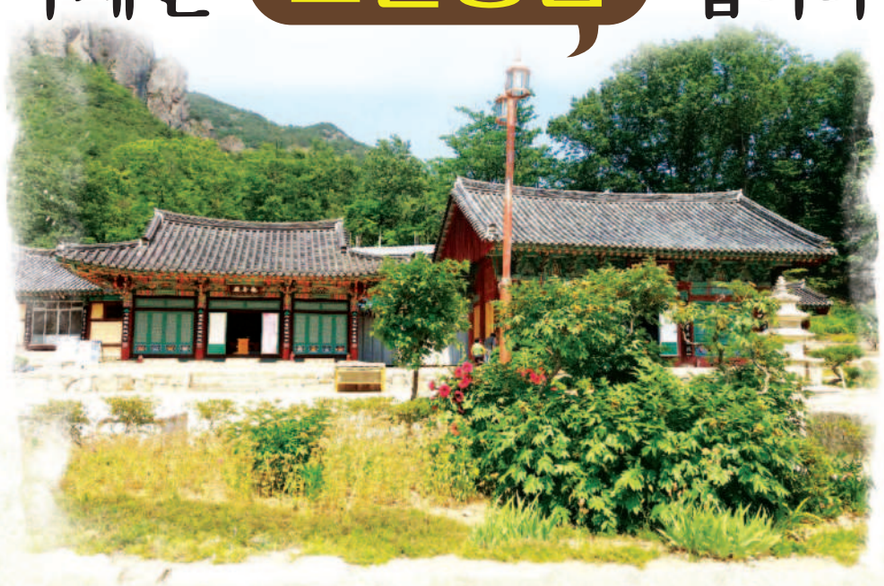
두 손을 모아 지장보살님께 말씀을 올리고는 다시 길을 나아간다. 순례가 끝났을 때 이 길 위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답이 있을 것이고 모두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순례자로서 이 길에 있었다는 것이다. 힘들 때마다, 기쁠 때 마다 언제나 마음에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난 시코쿠의 오헨로상이야!” 〈끝〉

〈자유기고가〉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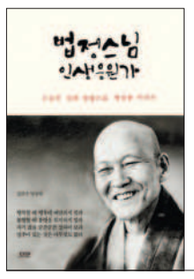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8~12/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3	아함전서 (전16권)	김윤수	운주사	8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인도 우화집)	류시화	더숲

"가난의 덕을 혜택으로 바꾸니 가난과 동거하고 싶어져"



법정 스님
인생응원가
정찬주 지음
다연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법정 스님의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2020년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며 당신의 말씀과 생전 일화를 암자 같은 저자의 남도 산중 산방에서 담백하게 담아낸 인생 에세이이자 명상록이다.

이제 인생의 향기 은은한 법정 스님의 말씀과 침묵을 통해 명상하며 맑고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듯 '다연(茶宴)' 같은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동안 발간하신 스님의 산문집 중 스님의 사상이 드러난 구절들만 뽑아 책을 한 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의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샘터사 편집자 시절, 길상사 행지실에서 차담 중에 스님의 동의 아래 다짐한 말이다. 하지만 시간은 회오리 바람처럼 거칠게 지나갔고, 정 작가는 끝내 스님 책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채 스님을 먼 길로 떠나 보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세월이 전생의 시간처럼 아득히 멀어진 지금, 2020년 3월 11일 입적 10주기를 즈음해 그날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실현했다.

사실, 법정 스님에 관한 여러 권의 인연 이야기, 자기계발서는 스님의 글과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다루며 독자들을 명언쯤의 지식 대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생전에 '좋은 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 스님은 "내 책을 징검다리로 삼아 침묵하면서 지혜를 얻어라. 왜 좋은 말만 좇느냐" 하셨던 만큼 이 책은 그 뜻에 걸맞은 진실한 명상의 시간을, 스님의 참뜻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중압감과 물욕으로 말미암은 상실감에 허덕이며 고단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위안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 책으로 법정 스님을 다시 만나 스님의 사상을 음미하며 다시금 신산한 삶을 사는 데 힘을 내보자. 그래서 '법정스님 인생응원가'다.

이 책의 핵심은 작가가 연필로 표시하거나 메모해 두었던 스님의 글 혹은 말씀 구절들이다. 작가 자신에게 명상의 주제와 가르침이 되었을 뿐 애석하게도 스님을 흠모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어버린 만큼, 작가는 오랜 숙고의 시간을 들여 글 형식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여 독자들과 함께할 명상록을 집필했다.

'명상, 스님의 공감언어' '명상, 스님의 공감법어' '명상, 스님의 명동성당 특별강론' 등 총 3부로 구성했는데, 이 책의 주요 구성은 '마중물 생각' '스님의 말씀과 침묵' '갈무리 생각'으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형식을 취했다. '마중물 생각'은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請法)의 글이라는 의미에서, '스님의 말씀과 침묵'은 스님의 가르침은 물론 그 너머 스님의 침묵까지 헤아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갈무리 생각'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상해낸 작가 상념이나 단상, 작가 삶의 흔적을 명상한 글이자 작가의 고백이다.



법정스님 '말과 침묵' 통해 명상 속 초대
마음 티끌 쓸어준 풍경소리 같은 명상록

특별히 책 표지에 공개된 법정 스님의 흑백사진은 불일암 덕조 스님이 소장한 것인데, 50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사진이다. 스님의 선의지와 깐깐한 지성이 미소 속에 묻어 있는데 영락없는 평소 얼굴인 것이다. 이제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즈음하여, 다시금 스님을 추억하고 그 말씀으로 명상하며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잠잠히 들여다보자.

▲저자 **정찬주 작가**는?

호는 벽록(檗綠). 1953년 전남 보성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여대부속여고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다가 십수 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 스님 책들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재가제자가 되었다. 법정 스님에게서 받은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마음에 품고서,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 이불재(耳佛齋)를 짓고 2002년부터 자연을 스승 삼아 벗 삼아 집필에만 전념 중이다.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암자로 가는 길〉(전 3권)을 비롯해 이 땅에 수행자가 존재하는 의미와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를 일깨우는 수십 권의 저서를 펴냈다. 장편소설로는 〈이순신의 7년〉(전 7권) 〈천강에 비친 달〉 등이 있고, 산문집 〈법정스님의 뒷모습〉 등이 있다. 또한 행원문학상, 동국문학상, 화쟁문화대상, 류주현문학상을 수상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스님께서는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주시면서 '저잣거리에 살되 물들지 말라'며 짧은 법문을 해주셨다. 이후 나의 법명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산중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가끔씩 돌아가신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은 깊은 산의 메아리처럼 울림이 크다. 저물녘에 눕는 산 그림자같이 여운이 길다. 산이 품고 있는 오래된 침묵에 응답하는 메아리 같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침묵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빛을 잃어가는 내 영혼이 시나브로 맑게 닦이는 듯하다."

"가난에 덕(德)이 있다니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 풍요의 반대인 결핍의 가치라고나 할까. 가난의 덕을 가난이 주는 혜택이라고 바꾸어보니 가난과 동거하고 싶어진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린 눈'이란 '본래의 눈'일 것이다. 우리는 본래의 눈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끼고 사니까 말이다. 잔이 비어 있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이다. 버리고 떠나기도 마찬가지. 그러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타인과 자기 대할 때 무조건 내려놓자"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목종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5천원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목종 스님의 두 번째 말씀집이다.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는 36개의 일상적 질문과 36개의 부처님 해답으로 간추려져 있다. 1부에서는 타인과의 갈등, 세상과 부딪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 본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대처법"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노력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지" 등의 질문에 불교적 관점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2부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질문과 내적 고민을 다룬다. 평소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질문도 있다. "평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건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남의 빈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지" 등이다. 자비와 인과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해답이기에 일반적인 조언이나 심리학적 조언과는 다른, 인상적인 대답이 많다.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더 신행의 길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면 새겨야 할 말이다.



"내려 놓을수록 이득이다"
답 찾지 못하던 질문에 답하다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게, 가져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오직 내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훨씬 행복해집니다. 상대도 그렇고요. 이를 불교에서는 '하심'이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목종 스님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하심(下心), 내려놓음이다. 저자는 아상과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이익"이라고 말한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저자는 내려놓기를 권한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사람의 뜻대로 해 주고, 재산이나 명예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구하려는 그 마음을 쉴 것'(106쪽)을 권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조건하에서만 행복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목종 스님**은?

1987년 범어사서 출가한 이후 10여 년간 토굴에서 정진하며 공부했다. 2009년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광명사를 창건했다. 해운대구청, 부산백병원 지도법사이자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회 사무총장,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총재로서 교계와 지역사회에 열심히 보살행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특히 BTN신행이야기 〈가피〉와 부산 불교방송(BBS) 〈목종 스님의 월요법문〉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불교를 목표로 전법에 힘쓰고 있다.



벽돌 한 장씩에 숨결 담긴 전탑

안동대博 '벽돌에 담긴 천년의 숨결'
12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전탑 · 모전석탑 40여 기 사진
임하사 전탑지 사리장엄구도
인도 · 중국 등 외국 탑도 선봬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법흥동 전탑(1914년)


임하사 전탑지출토 사리함, 사리병

전탑과 모전석탑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은 12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특별 전시실에서 특별전 '벽돌에 담긴 천년의 숨결'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됐고 규모가 가장 큰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탑과 모전석탑 40여기와 인도, 중국, 태국 등 외국의 전탑 · 모전석탑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그중 법흥사지 7층전탑과 운흥동 5층 전탑, 조탑동 5층전탑 등은 100년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탑지에서 출토된 유일한 사리장엄구인 임하사 전탑지의 사리병, 관옥 구슬 등도 소개된다.

전탑은 점토를 구워 만든 벽돌(전)로 쌓은 탑을 말하며, 인도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그 유례가 곳곳에 남아 있다.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에 전해졌으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는 숭악사 12각 15층탑(523)을 비롯해 중국 곳곳에 전탑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전이 건조물에 이용됐는데, 634년(신라 선덕여왕 3)에 조성된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전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후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건립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색상이 다양한 전을 이용하고 각종 문양을 표현한 건조물까지 출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과 밀착되지 않아 전탑은 많이 조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석재를 이용한 모전석탑이 성행했다.

전탑을 축조하는 데 사용된 전에는 문양이 장식됐는데, 현존하는 안동조탑동오층전탑과 여주 신륵사다층전탑에서 볼 수 있다. 조탑동전탑은 여러 번 보수를 거친 결과 시대를 달리하는 전이 섞여 있으며, 그중에 신라시대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당초문(唐草文)이 돋을새김된 전이 몇 장 남아 있어서 문양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륵사전탑도 여러 차례의 수리로 원형이 크게 변형되었으나 연주문(連珠文) 반원형과 함께 문양이 돋을새김된 전이 상당수 남아 있어서 당초에는 표면 전체를 문양전으로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탑은 우리 나라의 풍토나 민족성과 부합되지 않았던지 건립된 수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료에서 오는 취약성으로 인한 파훼로 현존한 것이 적다. 현존하는 예는 안동시의 신세동7층전탑 · 동부동5층석탑, 안동군조탑동5층전탑, 칠곡송림사5층전탑, 여주신륵사다층전탑 등이다.

안동의 신세동7층전탑은 현존 최고의 예로 추정되고 있으나 기단부는 후세의 변형으로 원형이 아니며, 상륜부에는 금동제 상륜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명장(明將)이 헐어냈다고 〈영가지(永嘉誌)〉에 기록되어 있다. 동부동5층전탑은 각층에 형식적인 감실이 설치된 점이 특이하며 상륜부는 역시 임진왜란 때 명장이 헐어냈다고 한다. 이 두 탑에는 옥개 낙수면에 기와가 입혀 있다.

모전탑은 석재를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탑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경주 분황사 석탑으로, 넓은 토석 기단 위에 안산암(安山岩)을 전(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옥개석 받침과 낙수면은 모두 층단을 이루어 전탑 특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있는 '양지(良志)' 의 전탑 축조기록을 통해 모전탑에 앞서 전탑(塼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탑이 가장 많이 세워졌고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전탑의 고장' 으로도 알려진 안동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벽돌로 만든 전탑과 벽돌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만든 모전석탑을 통해 선대의 생각과 미적 감각 등을 함께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BS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방영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은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소재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을 방영한다.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은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와 BBS불교방송, CBS기독교방송, CPBC가톨릭평화방송, WBS원음방송이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이다.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44분)' 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7대 실천과제인 나, 가정, 종교, 직업, 사회, 국민, 인류 가운데 '인류' 에 해당하는 실천강령으로 "나는 하나뿐인 지구의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애쓰며 인종과 민족, 지역과 국가,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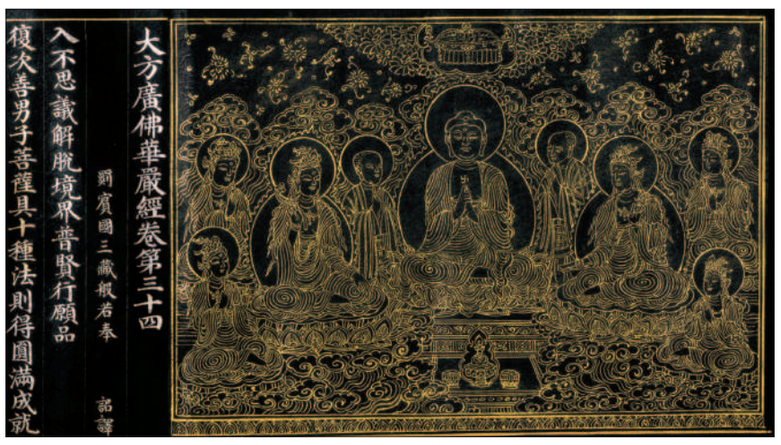
국적과 인종,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더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구호, 공생, 환경 3가지 색깔을 가진 단체와 개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각 종단별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의 활동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인터뷰 당사자들의 생각과 신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각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 '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은 BBS불교방송에서 12월 24일 11시 40분, 25일 오후 1시 40분, 28일 밤 12시 40분, 30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된다.

박재완 기자

다시 보는 장엄불사 고려사경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4(보물 제751호, 1337년)

호림박물관 테마전 '장엄공덕_고려사경' 展
12월 16일~내년 2월 22일 제3전시실서

성보 중의 성보 고려사경을 만난다.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은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신사분관에서 작은 테마 전시 '장엄공덕_고려사경' 과 '장중보옥_도자소품' 을 개최한다.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장엄공덕' 전에서는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4(보물 751호, 1337년)' 을 비롯해 고려시대 사경 12건(8점 보물)의 14점과 조선시대 사경 1건 7점을 전시한다.

사경은 불교경전을 서사(書寫)하는 것을 말한다. 사경의 큰 목적은 전파와 수행 그리고 공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고 할 수 있다.

372년(소수림왕 2)에 불상과 함께 불경이 이 땅에 전해진 이래 사경은 4세기 말부터 불교경전의 보급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본이 개판된 이후부터 목판본의 유행으로 사경의 목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8세기 중엽부터 10세기를 전후해서 널리 보급된 목판본이 대량 생산되면서 경전 보급의 형태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보급의 문제가 달라지면서 사경의 목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서사의 공덕' 이라는 신앙적 불사의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의 사경은 실용성보다는 신앙적인 면이 강조된 장식경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사경의 조성은 국왕발원에 의한 금자원 · 은자원 등에서 사성됐는데, 국가의 어려움을 불력으로 구원한다는 뜻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왕실과 귀족들은 번영과 수복을 기원하거나 명복을 비는 불심을 사경공덕에 집중하여 사경을 한층 호화롭고 장엄하게 조성하는 전기를 만들었다.

고려 전기의 사경은 주로 개경의 주요 사찰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무신집권기에는 사경을 전담하는 사역원이 설치되어 매우 정교한 사경이 사성됐다. 하지만 고려 말기인 14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신분에 관계없이 사경은 일반화됐다.

고려사경은 일반적으로 경전의 겉표지를 금은니로 보상당초문을 그렸고, 안표지는 경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변상도를 금니로 그렸으며, 경문은 금

보물 8점 포함 30여 점
신앙 요소 강조 고려사경
원나라, 고려 사경승 요구

선으로 가늘게 구획하여 금은자로 쓰거나 묵서되었는데, 모든 경우 변상은 금으로 그렸다.

사경의 형태는 권자본(두루말이 형태의 책)과 절본(접는 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본이 많다. 용지는 감색종이가 많이 쓰였고, 〈화엄경〉과 〈법화경〉을 필두로 〈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부모은중경〉 등이 주로 서사됐다.

충렬왕 이후 원나라에서 사경승과 경지에 대한 요구를 여러 문헌과 비문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림박물관은 현재 1만7천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보 8건, 보물 54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림박물관은 해마다 두세 차례 특별전을 열고 있다. (02)541-3523.

박재완 기자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500질 한정판매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운동 · 선지식 조명 학술연구 활성화

[2019 학술 · 문화재 결산]

3.1운동 100주년 연구들 활발
국보 미륵사지석탑 복원 완료
'원형 복원' 학계 논쟁 이어져
대행선硏 묘공학술상 첫 시상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돌


2월 27일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토론회에서 법륜 스님이 백용성 스님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다.


20년만에 복원이 완료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전경. 복원 후 원형 복원 논쟁으로 학계 논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기념촬영. 최우수상은 오용석 원광대 박사와 정재요 박사가 받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9년 기해년 한 해 불교학계와 문화재계는 대형 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3.1운동 100주년부터 〈불교평론〉 20주년까지 다양한 학술 이벤트들이 있었다.

3.1운동 100주년 학술행사 '다채'

올해 상반기는 3.1운동 100주년 학술행사들이 잇달아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계간 〈불교평론〉은 2월 28일 '불교, 조선 독립의 횃불을 들다' 를 주제로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김성연 불교학술원 박사가 독립유공자 활동을 중심으로 불교계 독립운동 양상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와 함께 2월 27일 기념 토론회를 열고 백용성 스님의 행적을 조명했다.

이런 학술대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뤄진 연구들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지난 2017년부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신문 · 잡지 · 판결문을 망라한 자료집과 종합적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집들을 발간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미륵사지석탑 복원… 원형 논쟁

20년 동안의 해체 보수 끝에 새로 복원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지난 4월 30일 대중에게 공개됐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됐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추정에 의한 복원이 아닌, 원래의 부재를 81%까지 최대한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감사원의 문제 제기로 다시 '원형 복원' 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행선 연구, 올해에도 활발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활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행선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첫 시상식이었다. 지난 7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에 오용석 원광대 박사의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과 정재요 경북대 박사의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가 각각 수상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의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 은 우수상을 받았다. 예비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묘공학술장학금의 첫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수혜자는 심사를 거쳐 출 · 재가자 6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행선연구원은 올해에도 정기학술대회와 4번의 계절발표회를 원만 성료했다.

지성불교 산실 〈불교평론〉 20돌

불교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1999년 '20세기 한국 불교의 회고와 반성' 을 주제로 창간호를 낸 후 〈불교평론〉은 '기복(祈福) 불교' '대승불교 정체성' 등 불교계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특히 〈불교평론〉은 그동안 기존 불교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시대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다룬 기획만 1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번 기획과 특집을 통해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고민했다.

〈불교평론〉이 만든 지성 간 토론모임 '열린논단' 은 지난 4월로 100회를 맞았다. 2009년 2월 27일 처음 시작한 열린논단은 시작부터 토론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행 선사 지식관, 共生의 지식관"

대행선연구원 제6회 계절발표회 개최
김영래 교수, '앎'의 인식 연구
"선사, 앎 · 행 둘 아님을 설해"


김영래 교수가 12월 14일에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6회 계절발표회에서 학술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보인 지식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교육에 적용 ·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2월 14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래 고려대 교수는 '대행 선사에 있어서 지식(앎)의 문제: 한마음인식론 시론' 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행 학교교육의 근간인 서구의 지식관을 고찰하고 대행 선사의 지식관을 분석한 뒤 현대교육 지식관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구성주의적으로 구성되고 체계화된 학교지식은 과학적 지식과 이데올로기가 기묘하게 조합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시스템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성장세대들은 학교지식으로 구성된 과학적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어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지식관이 현대교육의 서구적 지식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진리를 이론적으로 파악해 '생각하는 오류' 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했지만, 학문적 연구와 학습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대행 선사는 앎과 행이 둘이 아님을 설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행 선사에 있어서 근본적 의미의 앎은 '한마음의 앎(지혜)' "이라며 "한마음은 개체적 생명들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포괄하며 일체현상이 들고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참다운 자신의 발견 △앎과 행의 일치 등을 강조한 대행 선사의 지식관은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지식관을 "공생(共生)의 지식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행 선사는 생명의 근본 원리를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共食)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도리를 알아가고 실천해 가는 것이 본래의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라면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공생의 지혜를 확장시키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더불어 사는 삶' 이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관법수행을 통해 한마음의 지혜를 개발해 나간다면 기존 지식들에 속수무책으로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지식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 학자들과 인연을 맺게 돼 감사하다. 계절발표회를 통해 여러 학문을 접하고 대행 선사상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살필 수 있게 된다. 발표회에 참여해 줘 사부대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 바간시대 미술은 왕권 강화 목적"

부산박물관 · 서강대 동아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부산박물관과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공동으로 12월 13일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얀마 불교미술을 고찰하는 학술대회서 "미얀마 중부 지역 바간에 위치한 로케테익판 사원을 통해 불교미술이 왕권 강화를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시 됐다.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소장 강희정)와 공동으로 12월 13일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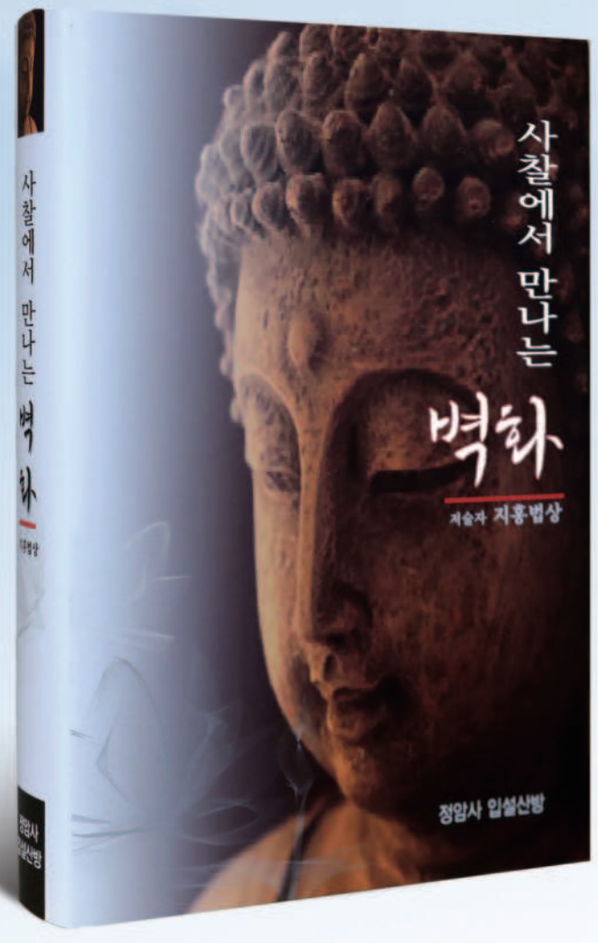
학술대회에서 하정민 서울대 강사는 '바간시대 불전미술-바간 로케테익판 사원의 도리천 설법도와 연등불수기 본생도 연구' 를 발표하며 "바간 왕실의 정치적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로케테익판 사원 벽화가 활용 됐다"고 말했다.

하정민 강사는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에 도리천 설법도와 연등불 수기 본생, 〈라타나 숫타〉주제 벽화는 붓다를 왕과 동일시하는 존재로 여기며, 붓다와 같이 왕은 이 세상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라고 시각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로케테익판 사원의 동벽 벽화 '도리천에서 석가모니 붓다의 표현' 은 바간에 널리 퍼져 있던 붓다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왕을 붓다와 동격으로 위치시킴으로 불교적 제왕으로 왕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등불 수기 본생도는 석가모니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아 붓다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짠시따 왕은 전생의 공덕과 인연으로 석가모니 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바간에서 불교적 제왕으로 다시 탄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근거 〈라타나 숫타〉를 도해한 장면에서는 "붓다가 출현해 건강과 안정을 가져오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 장면은 짠시따 왕과 관련한 예언 쉐지곤 명문을 떠오르게 해 백성들에게 행복, 풍요, 비옥함을 가져오는 존재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주에서 되주까지!

사찰에 가면 흔히 만나게 되는 벽화
때로는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면서 발품을 팔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알기 쉽도록 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340여 개의 벽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숨에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와 같은 책입니다.

벽화는 부처님 말씀을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올컬러 / 양장본 / 780쪽 / 값 50,000원 / 문의 010-4037-3539
농협 정암사 817101-51-067379

박재완의 PhotoEssay



동안거

한동안 우리
추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서로의 적적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오늘
아! 하는 소리가 가슴 곳곳을 찌른다
그렇게 별 것도 아닌 것을
이제야 알 듯 말 듯
너는 너, 나는 나일 수밖에 없어도
바람 불면 한 번 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짚어본다
칼바람 사이사이
더운 일면을 스치운다

〈끝〉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⑰ 김수환 추기경

사형제 폐지에 앞장선 거룩한 종교인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에 드신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아마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누구보다 애통해 하던 이들은 전국 교도소 사형수들일 것이다. 김 추기경이 그동안 사형 집행을 막아온 측면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선종 당시 대다수 언론은 추모 행렬을 조명하며 '김수환 신드롬' '명동의 기적'이라 표현하며 그의 숭고한 가르침과 못다 이룬 큰 뜻을 조명했다. 그러나 김 추기경이 생애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 쏟았던 한 가지 주제는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 반대와 사형제 폐지다. 김 추기경이 평생 낮은 데로 임한 곳은 달동네 등 소외된 이웃만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 안구까지 기증하며 생명 존중과 사랑을 실천했던 그의 생전 행선지 가운데는 사형수들이 수감된 교도소가 포함돼 있다.

김 추기경은 1993년 평화방송의 신년 특별대담을 통해서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질주범으로 인해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그 범인을 용서한다는데 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꼭 집행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의도 차량 질주범은 1997년 사형이 집행됐다.

생전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서울구치소를 자주 방문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전 대규모 사형을 집행하자 김 추기경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법무부와 청와대를 오가며 줄기차게 사형 집행과 사형제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호소했다. 1999년 7월2일, 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의 안내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처음으로 사형수들을 집단 면담한 김 추기경은 이어 2001년 10월 26일에도 서울구치소 사형수들을 찾아가 미사를 집전했다. 김 추기경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교정국 간부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찬반 논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때 생명 존중 사상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면 사형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추기경의 사형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범종교적이었다. 21세기는 '생명의 문화'가 세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늘 설파한 그는 2000년에 불교·개신교계 원로 지도자들과 연대해 '사형폐지 촉구 3대 종단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김 추기경은 사형 집행을 중지하게 하고 이를 통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사형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가도 굵직한 흉악범 사건이 터지면 분노한 여론이 '모든 사형수들에 대한 즉각 사형 집행'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추기경은 천주교 서울 대교구 산하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통해 사형수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을 보듬는 데도 힘썼다.

1990년대 중반 서울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으로 피해자를 입은 유가족 중에는 어린 손자를 잃은 서윤범 할머니가 있었다. 천주교의 주선으로 할머니는 가해자인 사형수를 만난 뒤 그가 가난하고 냉대받는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 결국 세상에 대한 분노를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표출했다는 것을 알고 사형수를 양아들로 삼았다. 김추기경은 서 할머니의 사례를 '진정한 용서'로 보고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묵살했다. 범인이 사형집행 당한 뒤에도 피해자인 서 할머니는 매년 사형수 기일이면 연미사를 올리는 방법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 큰 감동을 일으켰다.



삼중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모두 사형제 폐지에 많은 노력을 한 종교인이다.

구상 시인의 소개로 첫 인연돼
외국인 사형수 함께 살려내기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 이뤄내다

사형 폐지를 주창하면서도 이처럼 사형수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김 추기경은 2006년부터 교구 내에 '피해자 모임'을 만들도록 했다. 사형수에게 가족을 잃고 숨죽여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 심리치료 상담과 후원을 받게도 했다. 사형수 피해자 모임을 접견한 김수환 추기경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말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렇다 할 치유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추기경이 지원한 이 모임은 '죽은 이와 제대로 이별하는 연습'을 해주는 치료 프로그램인 셈이다. 김 추기경의 뜻에 따라 천주교에서 운영해온 사형수 피해자 모임의 사연은 다큐멘터리 〈용서〉로도 개봉돼 잔잔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교는 다르지만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산 김수환을 처음 만난 곳은 나의 절친인 구상 시인의 시비 제막식에서였다. 평소 강을 좋아했던 구상 시인은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에 살았다. 그래서 한강변에 그의 시 〈강〉을 시비로 만들었는데, 이때 구상의 소개로 인사를 했다.

천주교 신자인 구상 시인과 김수환 추기경은 동경 유학을 함께한 인연으로 깊은 친분이 있었다. 김 추기경은 나를 보자마자 서울구치소 사형수 교화할 때 몇 번 뵙고 언론에서도 자주 봐서 무척 낯이 있다고 웃으며 반가워 했다.

이후 김 추기경과 나는 파키스탄 사형수를 함께 살린 기억이 있다. 명동성당으로 찾아가 외국인 사형수의 억울함을 알리자, 김 추기경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해주셔서 결국 풀려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번 교유하며 사형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한 번은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찾아오신 적도 있는데, 내가 안내해 드린 기억도 있다. 마지막으로 김 추기경을 뵌 것은 구상 시인의 명동성당 장례 미사에서였다. 맨 앞에 서 서 미사를 집전하셨다. 언제 뵈도 겸손하시고 만면의 미소를 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은 연말연시 그 분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 보고 싶어진다. 〈끝〉

정리=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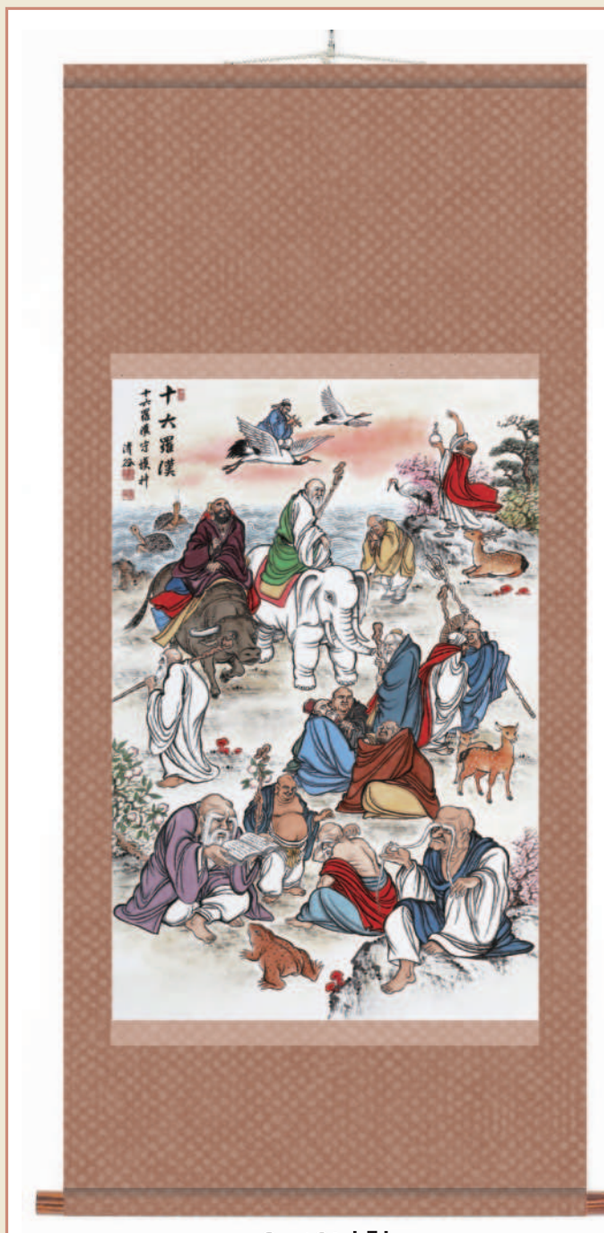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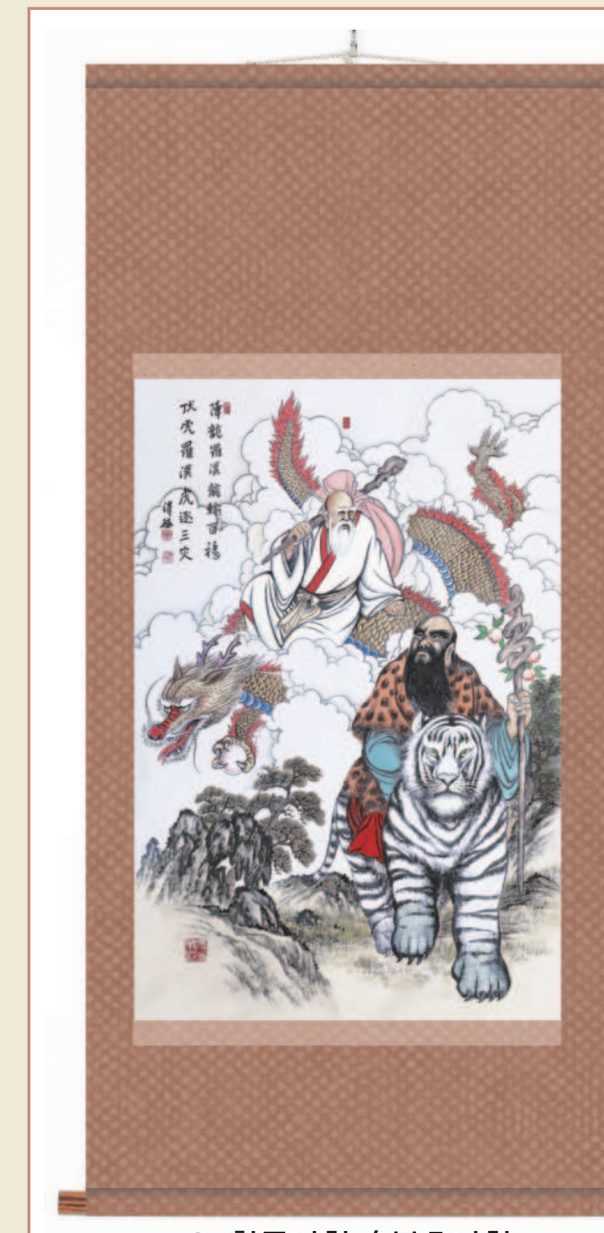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